

# KERI 경제동향과 전망

2022년 1분기

한국경제연구원

집필진

이승석 부연구위원

감수

조경엽 경제연구실 실장

〈 차례 〉

요 약 .....	v
제I장 최근 경제동향 .....	1
1. 경제성장 .....	3
2. 수출입(통관기준) 및 경상수지 .....	10
3. 고용 .....	16
4. 물가 .....	18
5. 금리와 환율 .....	23
제II장 국내 경제전망 .....	25
1. 대외 여건 .....	27
2. 2022년 국내 경제전망 .....	30

〈 표 차례 〉

〈표 I-1〉 주요 산업활동 지표 .....	9
〈표 II-1〉 세계 경제 전망 .....	28
〈표 II-2〉 세계 석유 수급 전망 .....	29
〈표 II-3〉 해외 주요기관 유가(기준유가) 전망 .....	29
〈표 II-4〉 전망의 주요 전제 .....	29
〈표 II-5〉 2022 국내경제전망 .....	48

## 〈그림 차례〉

〈그림 I-1〉 실질GDP 증가율 추이	3
〈그림 I-2〉 주요 최종수요 항목별 증가율 추이	4
〈그림 I-3〉 부문별 GDP 성장 기여도	6
〈그림 I-4〉 산업생산	8
〈그림 I-5〉 경기종합지수	10
〈그림 I-6〉 수출증가율 및 일평균 수출액	11
〈그림 I-7〉 수입증가율 및 일평균 수입액	11
〈그림 I-8〉 통관기준 무역수지-수출-수입	12
〈그림 I-9〉 주요 지역별 수출증가율	13
〈그림 I-10〉 주요 품목별 수출증가율	14
〈그림 I-11〉 경상수지 항목별 증감	15
〈그림 I-12〉 서비스수지 항목별 증감	15
〈그림 I-13〉 경제활동참가율, 실업률, 취업자증가율	17
〈그림 I-14〉 고용률	17
〈그림 I-15〉 산업별 취업자 증감(2021.3 → 2022.3)	18
〈그림 I-16〉 주요 물가지수 증가율 추이	19
〈그림 I-17〉 품목성질별 증가율	20
〈그림 I-18〉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증가율	21
〈그림 I-19〉 서울지역 아파트매매가격지수 증가율	21
〈그림 I-20〉 아파트 전세가격	22
〈그림 I-21〉 한·미 기준금리와 한국의 시장금리	23
〈그림 I-22〉 원/달러, 원/100엔	24
〈그림 II-1〉 국제유가 추이	28
〈그림 II-2〉 역사적 민간소비 증감률(1996~2016)	30
〈그림 II-3〉 소비자심리지수	31
〈그림 II-4〉 최근 가계 소득 현황	32
〈그림 II-5〉 평균소비성향	33
〈그림 II-6〉 가계대출 이자부담 추이	33
〈그림 II-7〉 역사적 설비투자 증감률(1996~2016)	34
〈그림 II-8〉 제조업 설비투자압력	35
〈그림 II-9〉 업황전망	35
〈그림 II-10〉 역사적 건설투자 증감률(1996~2016)	36

〈그림 II-11〉 건축허가 연면적 증가율 추이 .....	37
〈그림 II-12〉 역사적 수출 증감률(1996~2016) .....	38
〈그림 II-13〉 품목별 수출경기 .....	39
〈그림 II-14〉 역사적 GDP 증감률(1996~2016) .....	40
〈그림 II-15〉 경상수지 항목별 전망 .....	42
〈그림 II-16〉 전세가격, 임금총액 .....	43
〈그림 II-17〉 수입물가, 기대인플레이션율 .....	44
〈그림 II-18〉 원/달러, 달러 인덱스 .....	45
〈그림 II-19〉 미국 기준금리 전망 .....	45

## 요약

2022년 경제성장률은 최근까지 진행된 오미크론 확진자 급증 및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에 따른 교역조건 악화로 경기회복세가 약화된 가운데, 기저효과가 점차 소멸하고 중국의 경기둔화에 따라 수출의 성장세마저도 약화됨에 따라 다시 2%대 성장으로 회귀하여 2.5%를 기록하게 될 전망이다.

구체적으로 수출은 지난 해 높았던 실적에 대한 역(逆)기저효과와 중국의 성장세 둔화에 따른 영향으로 2.5% 성장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정학적 리스크 심화에 따른 주요국의 경기회복세 둔화로 교역조건 악화가 장기화될 경우에는 수출증가세가 더욱 약화하게 될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다.

설비투자는 반도체 부문에 대한 공격적 투자지속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공급망 차질에 따라 주요국의 경기회복세가 약화되며 2.1% 성장에 머물게 될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억제 의지로 부진을 지속해 온 건설투자는 공공재개발, 3기 신도시 등 정부주도의 건물건설이 증가에도 불구하고 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라 공사차질이 현실화되면서 1.0% 성장에 그칠 것으로 것으로 전망된다.

내수부문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민간소비는 3.0%에 미치지 못하는 2.8% 성장하며, 미흡한 수준의 성장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에 힘입어 회복세를 보여 왔던 민간소비는 백신보급 확산에도 불구하고 오미크론 확진자가 급증했던 여파로 재(再)위축 흐름을 보이는 가운데, 자영업 부진에 따른 소득기반 약화, 빠른 금리인상으로 가중된 가계부채원리금 상환부담, 최근 급격한 물가인상으로 인한 소비심리 위축 등의 요인 역시 민간소비 회복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기 때문이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국제원자재 가격 급등 및 수급불균형 현상이 광범위하게 물가상승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3.8% 수준에 이르게 될 것으로 예측된다.

한편 원·달러환율의 경우, 美연준의 통화정책 정상화가 본격화되고 미국의 경기회복세가 지속되는 반면, 한국의 성장속도는 상대적으로 둔화하게 됨에 따라 강세 흐름을 지속하며 연평균 1,255원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 제 I 장

# 최근 경제동향

1. 경제성장
2. 수출입(통관기준) 및 경상수지
3. 고용
4. 물가
5. 금리와 환율



## 1. 경제성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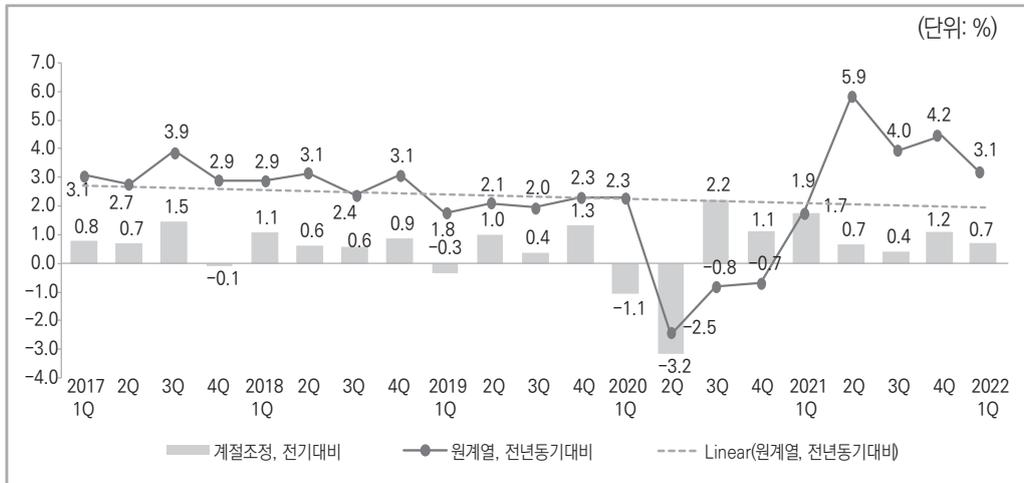
□ '22년 1/4분기, 오미크론 대유행 및 글로벌 공급망 교란 현상 심화에 따른 하방압력 확대로 경기회복세 약화

( '22년 1/4분기, 전년동기비 3.1%, 전기대비 0.7%)

○ 1/4분기 전기대비 성장률이 0.7%를 기록하며 1% 아래로 내려앉은 가운데, 전년동기대비 성장률은 기저효과 영향에 힘입어 3%대 수준을 기록

- 전기비: -1.1%(2020.1/4) → -3.2%(2020.2/4) → 2.2%(2020.3/4) → 1.1%(2020.4/4) → 1.7%(2021.1/4) → 0.7%(2021.2/4) → 0.4%(2021.3/4) → 1.2%(2021.4/4) → 1.2%(2022.1/4)
- 동기비: 2.3%(2020.1/4) → -2.5%(2020.2/4) → -0.8%(2020.3/4) → -0.7%(2020.4/4) → 1.9%(2021.1/4) → 5.9%(2021.2/4) → 4.0%(2021.3/4) → 4.2%(2021.4/4) → 4.2%(2022.1/4)

〈그림 I-1〉 실질GDP 증가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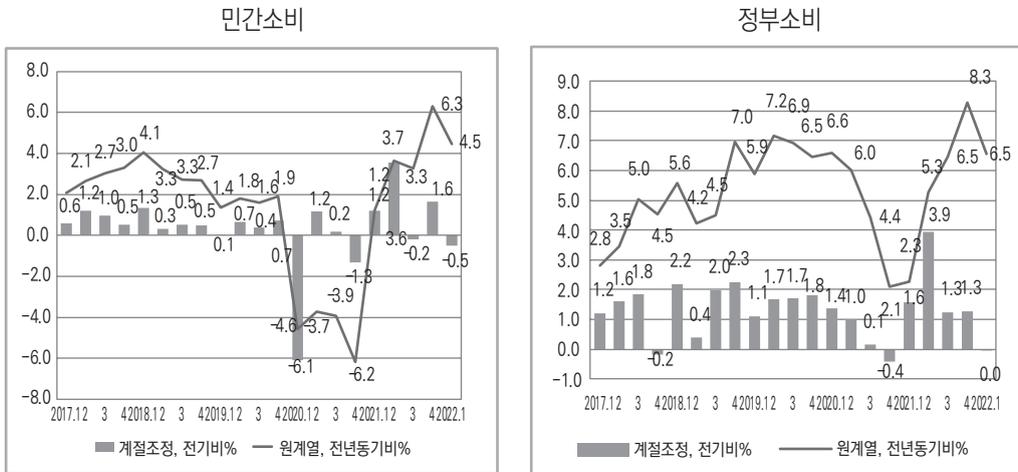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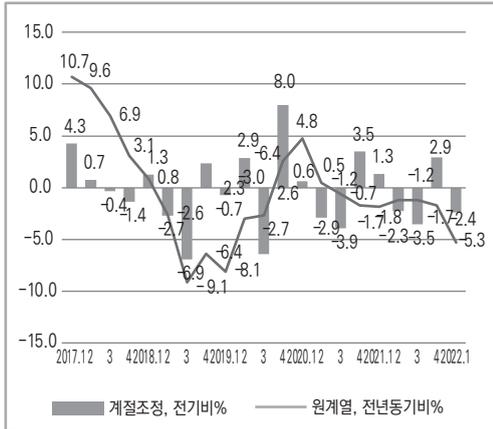
- (최종수요) '22년 1/4분기, 민간소비, 건설투자, 설비투자 동반 부진. 수출은 증가세 지속
- 백신접종 확대의 영향으로 증가흐름을 이어오던 민간소비는 1분기 중 확진자가 급증하고 방역조치가 재강화되었던 여파로 회복세가 약화
- 건설투자는 여전히 토목부문을 중심으로 부진이 지속되면서 회복세가 살아나지 못하는 모습
- 설비투자는 전년도 큰 폭 증가에 따른 조정이 이루어진 가운데, 특히, 기계류와 운송장비에 대한 투자가 줄면서 감소
- 수출은 글로벌 공급망 차질에 따른 불확실성 확대에도 불구하고 반도체를 중심으로 증가세 지속하며 성장을 견인

〈그림 1-2〉 주요 최종수요 항목별 증기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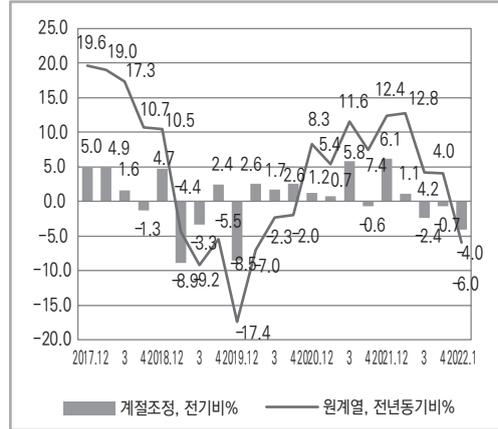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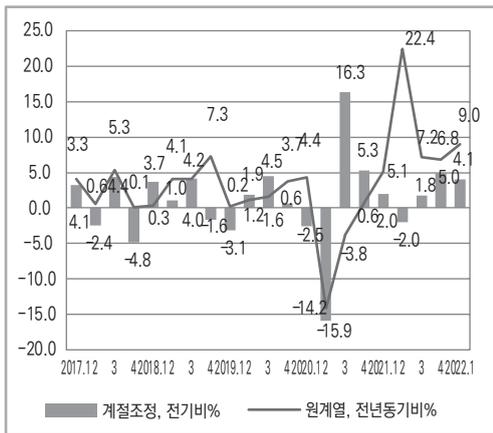
건설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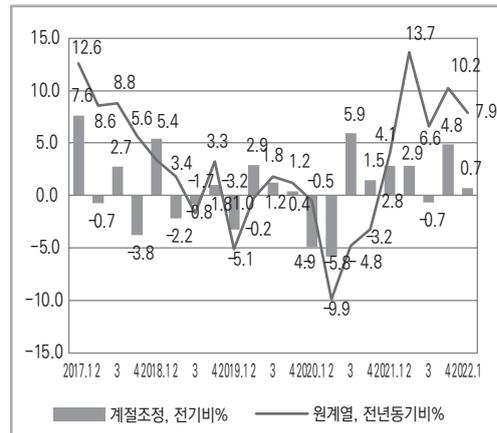
설비투자



수출(재화+서비스)



수입(재화+서비스)



자료: 한국은행

□ (기여도) 내수의 기여도 축소, 순수출(수출-수입)의 기여도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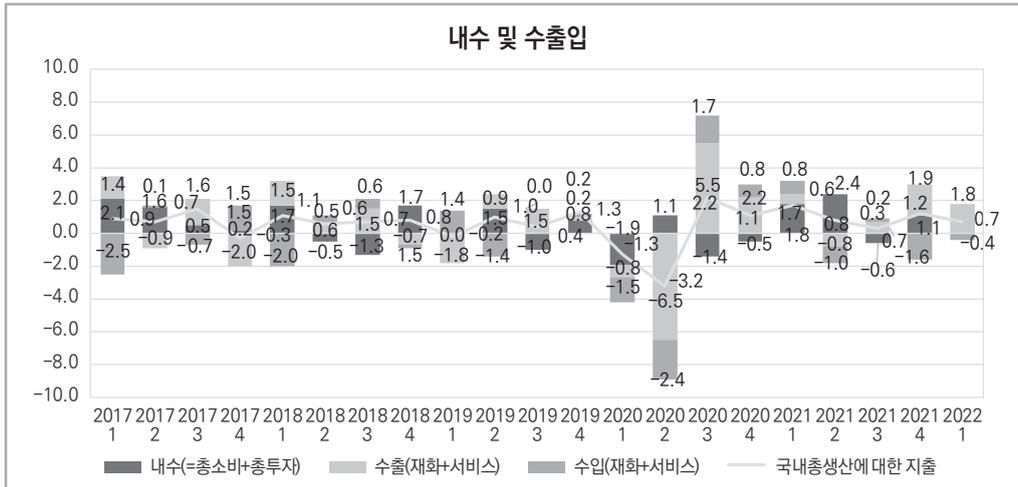
- 내수(총소비+총투자): -1.9%(2020.1/4) → 1.1%(2020.2/4) → -1.4%(2020.3/4) → -0.5%(2020.4/4) → 1.8%(2021.1/4) → 2.4%(2021.2/4) → -0.6%(2021.3/4) → 1.1%(2021.4/4) → -0.7%(2022.1/4)
- ✓ 총소비: -2.9%(2020.1/4) → 0.7%(2020.2/4) → 0.1%(2020.3/4) → -0.7%(2020.4/4) → 0.8%(2021.1/4) → 2.3%(2021.2/4)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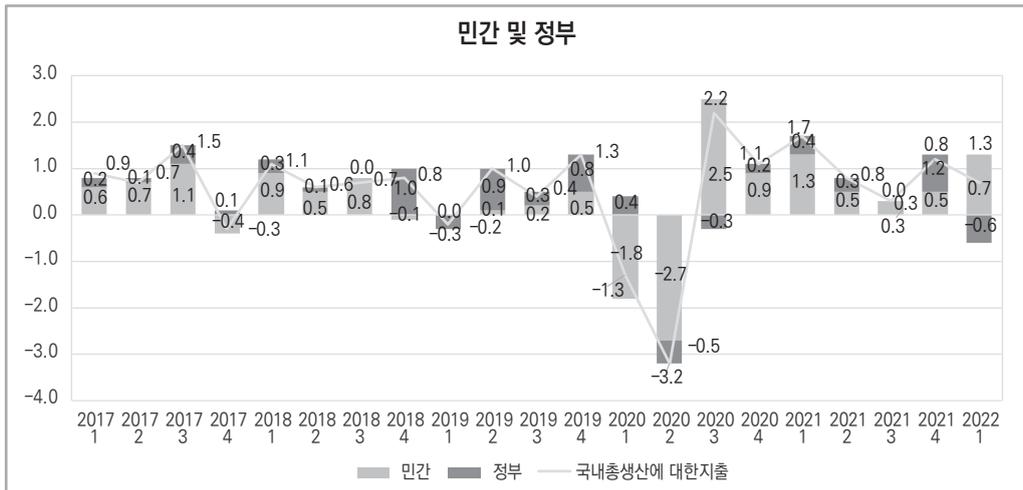
- 0.1%(2021.3/4) → 1.0%(2021.4/4) → -0.2%(2022.1/4)
- ✓ 총투자: 1.0%(2020.1/4) → 0.4%(2020.2/4) → -1.5%(2020.3/4) → 0.2%(2020.4/4) → 1.1%(2021.1/4) → 0.1%(2021.2/4) → -0.7%(2021.3/4) → 0.1%(2021.4/4) → -0.5%(2022.1/4)
- 순수출: 0.6%(2020.1/4) → -4.3%(2020.2/4) → 3.6%(2020.3/4) → 1.6%(2020.4/4) → -0.3%(2021.1/4) → -1.7%(2021.2/4) → 0.9%(2021.3/4) → 0.3%(2021.4/4) → 1.4%(2022.1/4)

o 민간부문의 기여도는 확대 정부부문 기여도는 감소

〈그림 I-3〉 부문별 GDP 성장 기여도

(단위: 계절조정 전기비, %p)





자료: 한국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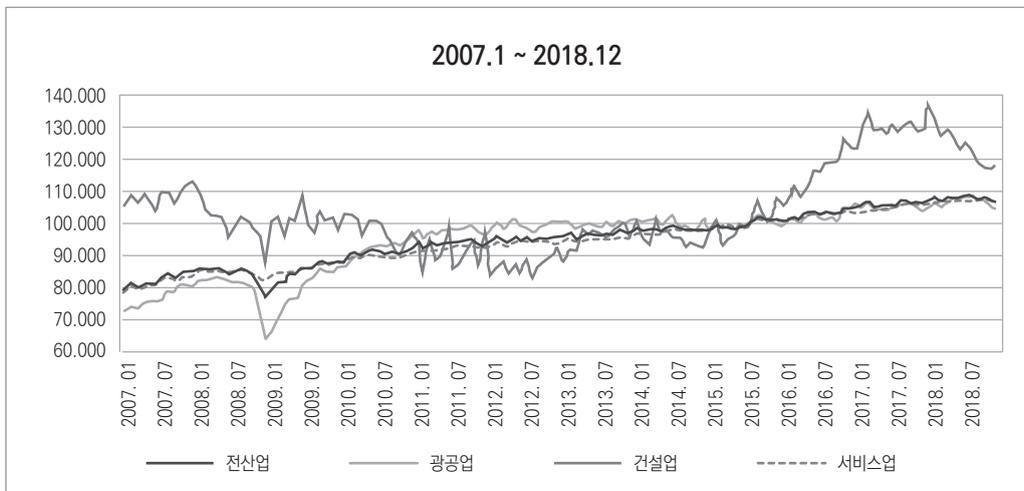
- 2월 산업생산. 회복흐름을 지속해 오던 산업생산은 코로나19 확진세 확대에 전월 대비 감소세로 전환. 소비는 소폭 증가
- (생산) 전산업생산은 동기비로는 4.3% 증가(기저효과)하고 전기비로는 0.2% 감소. 광공업은 반도체를 중심으로 전월대비 늘었으나, 서비스업이 줄면서 전체적으로 감소
  - 전산업생산(전기비): 1.2%(2021.11월) → 1.3%(2021.12월) → -0.3%(2022.1월) → -0.2%(2022.2월)
  - 광공업 생산은 반도체, 전자부품 등에서 증가, 기계장비 등에서 감소
    - ✓ 전체 광공업(전기비): 1.6%(2021.11월) → 3.4%(2021.12월) → 0.3%(2022.1월) → 0.6%(2022.2월)
    - ✓ 주요 증가 업종(전기비): 반도체(10.1%), 전자부품(5.6%)
    - ✓ 주요 감소 업종(전기비): 기계장비(-9.3%)
  - 서비스업 생산은 보건·사회복지 등에서 늘었으나 숙박·음식업 등에서 줄면서 감소
    - ✓ 전체 서비스업(전기비): 1.2%(2021.11월) → -0.4%(2021.12월) → -0.4%(2022.1월) → -0.3%(2022.2월)
    - ✓ 주요 증가 업종(전기비): 보건·사회복지(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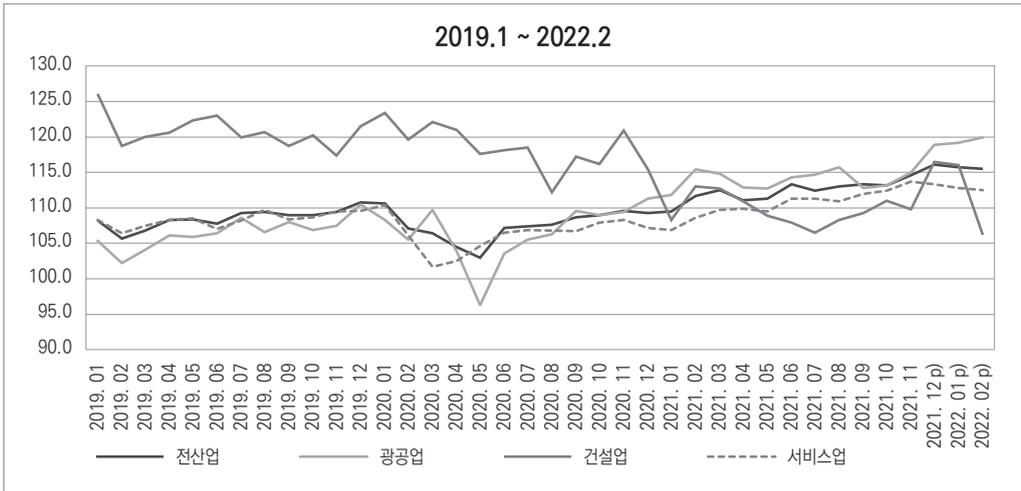
✓ 주요 감소 업종(전기비): 숙박·음식업(-4.0%)

- (소비) 소매판매는 승용차 등 내구재 판매에 힘입어 전기대비 0.1% 증가. 전년동기 대비로는 1.6% 증가
  - 전체소매판매(전기비): -0.7%(2021.11월) → 2.2%(2021.12월) → -2.1%(2022.1월) → 0.1%(2022.2월)
- (투자) 설비투자는 기계류 및 운송장비 투자가 모두 줄어 전기대비 감소. 건설투자는 건축과 토목 모두 부진한 흐름 지속
  - 설비투자(전기비): 3.9%(2021.11월) → 2.1%(2021.12월) → 2.1%(2022.1월) → -5.7%(2022.2월)
  - 건설투자(전기비): -1.1%(2021.11월) → 6.0%(2021.12월) → -0.4%(2022.1월) → -8.5%(2022.2월)

〈그림 I-4〉 산업생산

(단위: 지수(계절조정))





자료: 통계청

〈표 I -1〉 주요 산업활동 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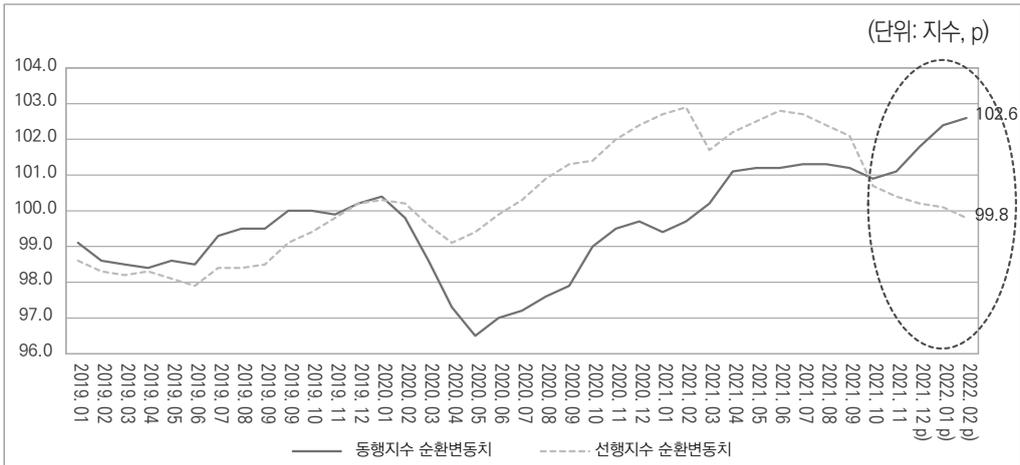
(단위: 전년동월(기)비 %, 괄호 안의 숫자는 전기비)

		2021년			2022년	
		연간	4/4	2월	1월 p)	2월 p)
생산	전산업	4.9	5.7(1.5)	0.5(2.0)	4.3(-0.3)	4.3(-0.2)
	제조업	7.6	6.5(1.3)	1.4(3.5)	4.3(0.2)	6.2(0.3)
	서비스업	4.4	5.5(1.5)	0.9(1.6)	4.7(-0.4)	3.8(-0.3)
	평균가동률	74.4	75.4	75.4	78.4	77.5
소비	소매판매	5.9	6.4(1.1)	8.6(-0.9)	4.7(-2.1)	1.6(0.1)
투자투자	설비투자	9.6	6.2(-1.2)	7.8(-2.6)	0.1(2.1)	2.1(-5.7)
	건설기성	-6.7	-2.9(4.1)	-10.2(4.3)	6.0(-0.4)	-4.7(-8.5)

자료: 통계청

- (경기) 점진적으로 증가해 오던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교역조건 악화 등 하방리스크 확대에 감소,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광공업생산 증가에 힘입어 증가

〈그림 1-5〉 경기종합지수



자료: 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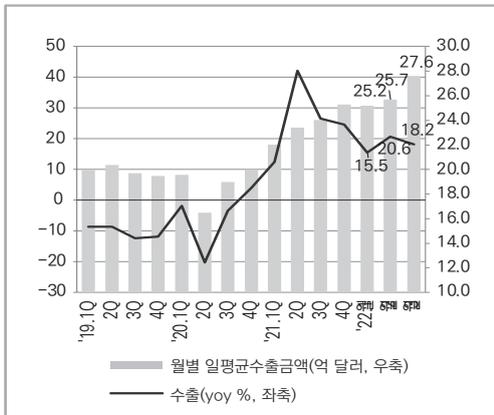
## 2. 수출입(통관기준) 및 경상수지

- 무역수지 흑자 2021년 4분기 43.6억 달러로 전년동기 대비 138.6억 달러 감소(전기대비 32.9억 달러 감소)
- 2021년 4/4분기 수출은 반도체, 무선통신, 석유화학 등 주력 수출품목들이 두자릿수의 성장세를 보이면서 높은 실적을 기록
- 수입은 수출경기 호조로 중간재 수입이 크게 늘어난 가운데 국제 원자재가격 상승까지 영향을 주면서 30% 이상 큰 폭 증가
- 2021년 4/4분기 무역수지 흑자 43.6억 달러로 수출호조에 불구하고 수입이 더 큰 폭으로 늘면서 전년 동기 대비 흑자폭은 크게 감소
  - 수출은 1,767억 달러를 기록하며 전년동기대비 24.5% 증가
  - 수입은 1,723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39.3% 증가

- 2022년 수출은 13개월 연속 두자릿수의 성장률(3월 수출 역대 최고치 기록)을 보이며 견조한 흐름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 사태 등 영향으로 에너지 및 중간재 가격이 급등하면서 무역수지는 저조한 실적을 기록
  - ✓ 2022년 1월 수출 554.3억 달러(전년동기대비 15.2% 증가), 수입 601.6억 달러(전년동기대비 35.5% 증가)로 무역수지 47.3억 달러 적자 기록
  - ✓ 2월 수출 539.1억 달러(전년동기대비 20.6% 증가), 수입 530.8억 달러(전년동기대비 25.1% 증가)로 무역수지 흑자 8.3억 달러 기록
  - ✓ 3월 수출 634.8억 달러(전년동기대비 18.2% 증가), 수입 636.2억 달러(전년동기대비 27.9% 증가)로 무역수지 1.4억 달러 적자 기록
- 수출액은 반도체와 석유화학을 중심으로 역대 최고 실적을 경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에너지·중간재 수입이 급등하며 수입 역시 역대 최고 수입액을 기록하면서 무역수지는 저조한 흐름

〈그림 1-6〉 수출증가율 및 일평균 수출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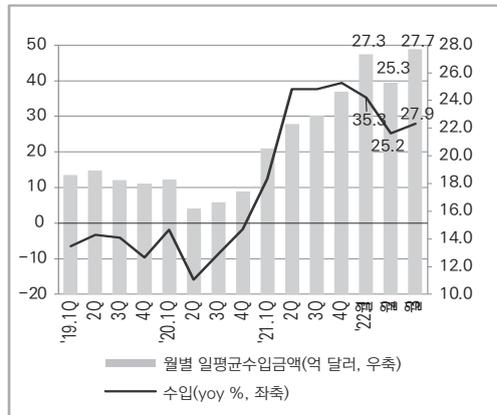
(단위: 억 달러, 전년동기대비, %)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관세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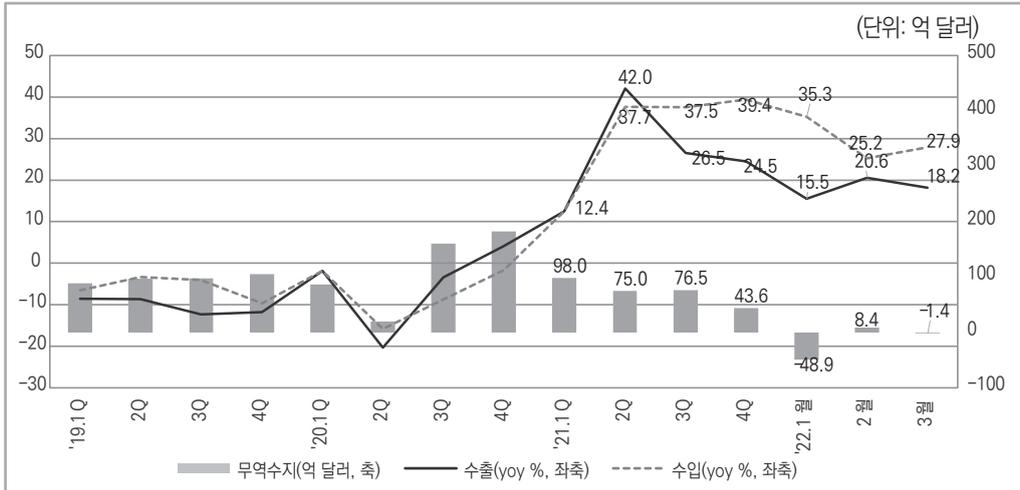
〈그림 1-7〉 수입증가율 및 일평균 수입액

(단위: 억 달러, 전년동기대비, %)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관세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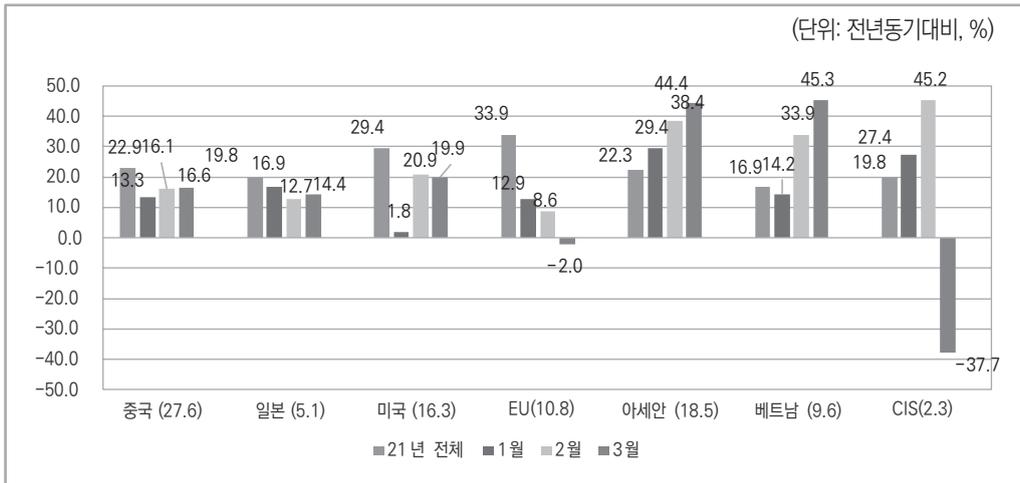
〈그림 1-8〉 통관기준 무역수지-수출-수입



자료: 한국은행, 관세청

- (지역별 수출) 주요국의 경기회복 및 소비부양 노력에 힘입어 지역별 수출은 양호한 실적을 보였으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를 포함한 CIS와 EU 수출은 감소
  - 미국: 고인플레이션 우려에도 불구하고 생산 및 소비지표가 양호한 실적을 보이며 대미수출 호조 지속
    - ✓ 주요 수출증가품목: 반도체, 일반기계, 바이오
  - 중국: 경기회복세 둔화에도 불구하고 중국 정부의 적극적인 내수부양 정책에 따른 소비개선에 힘입어 대중수출 증가세 지속
    - ✓ 주요 수출증가품목: 반도체, 석유화학, 무선통신기기
  - 유로: 친환경차, 선박, 바이오헬스 수출에 힘입어 역대 최고 실적을 기록했던 전년 동월에 대한 역(逆)기저효과로 EU 수출액은 마이너스(-)로 전환
    - ✓ 주요 수출증가품목: 철강
  - 일본: 대일수출은 석유제품과 일반기계를 중심으로 증가
    - ✓ 주요 수출증가품목: 석유제품, 일반기계
  - CIS: 장기화되고 있는 우크라이나 사태의 영향으로 주력품목이었던 자동차, 일반기계를 중심으로 37%를 넘어서는 감소를 기록
    - ✓ 주요 수출증가품목: 석유제품, 일반기계

〈그림 I-9〉 주요 지역별 수출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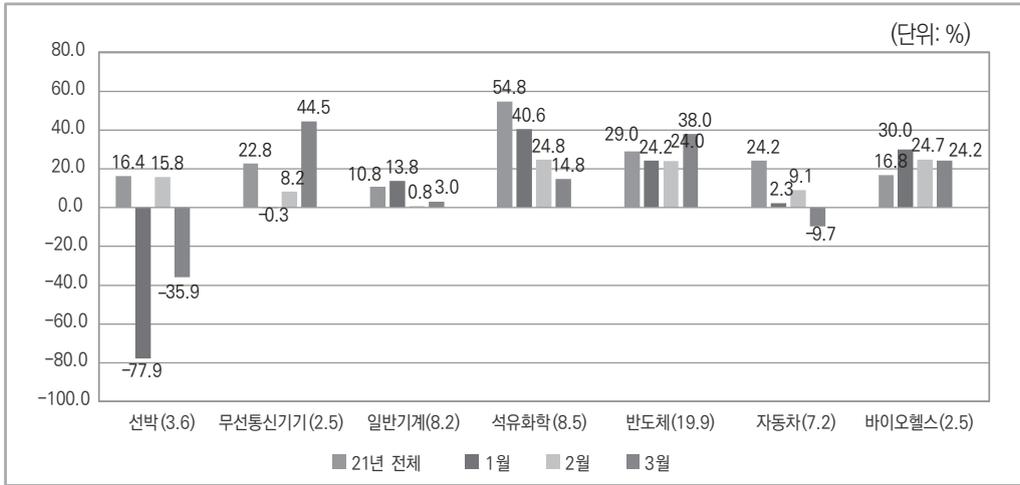
주: ( ) 내 수치는 2021년 기준 지역별 수출비중

자료: 한국무역협회, 통계청

- (품목별 수출) 반도체, 석유화학, 무선통신기기 등 주력품목이 기록적인 실적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바이오헬스, 이차전지 등 신성장 품목들 역시 높은 상승세 지속
  - 반도체: D램 가격이 소폭 하락하였으나 주요 모바일 제조업체들의 잇따른 신규 스마트폰 출시와 파운드리 업황호조에 힘입은 반도체 수요 증가에 따라 양호한 수출 실적 지속
    - ✓ 21개월 연속 수출 증가
    - ✓ 신규 CPU 출시와 주요 데이터센터 업체들의 서버증설에 따라 고용형 D램 수요가 확대 영향 지속
  - 자동차: 차량용 반도체 수급차질,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CIS에 대한 수출감소 등의 영향으로 감소세로 전환
  - 일반기계: 주요국의 투자 재개에 따라 인프라 투자가 늘면서 건설기계류의 수출이 큰 폭으로 증가한 가운데 공작기계류 역시 수출 증가
  - 석유화학: 국제유가 상승의 영향으로 수출단가가 큰 폭으로 증가한 가운데 중국, 아세안 등 주요 지역으로 수출이 고르게 증가
    - ✓ 현재 반도체에 이은 2위 수출품목

- ✓ 국제유가 상승 이외에도 합성수지, 고무 등 석유화학 제품의 수요가 크게 확대

〈그림 I-10〉 주요 품목별 수출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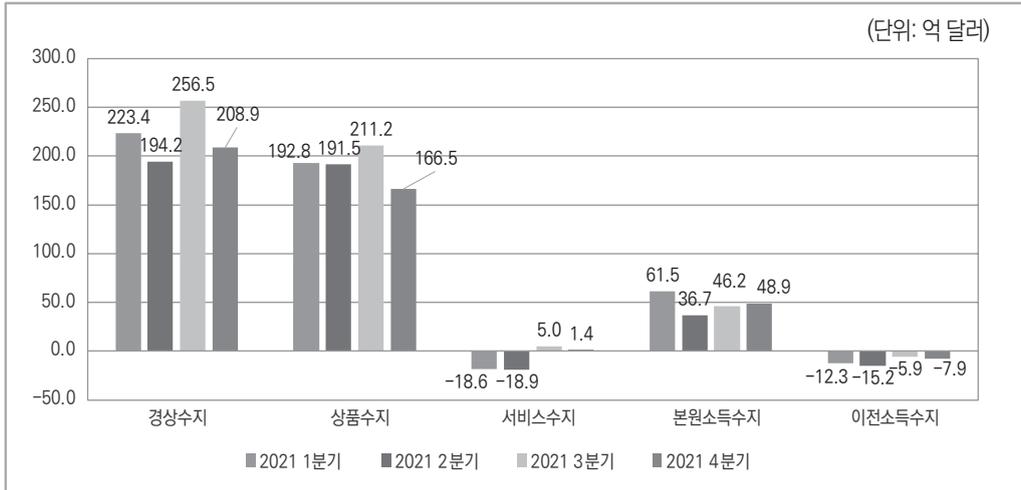


주: ( )내 수치는 2021년 기준 품목별 수출비중

자료: 한국무역협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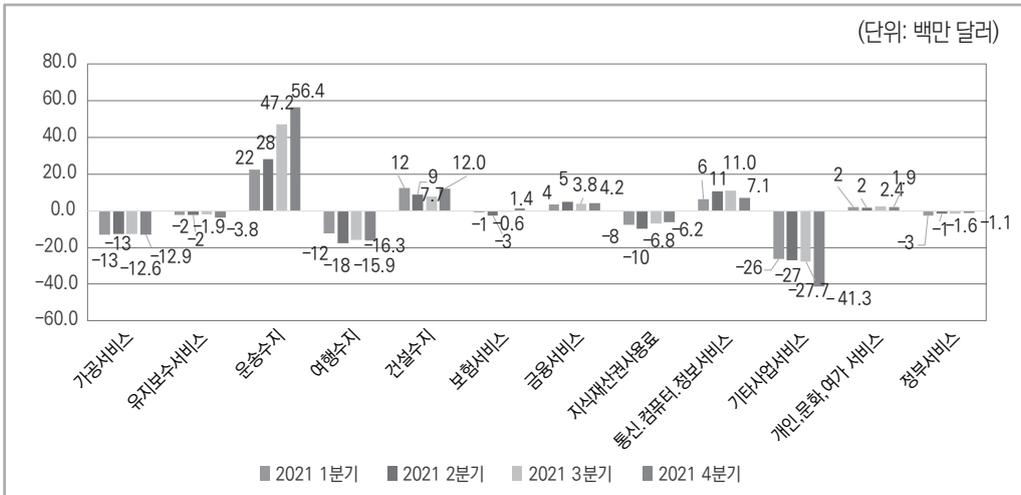
- 2021년 4/4분기 경상수지는 서비스수지 개선에도 불구하고 상품수지의 저조한 실적에 기인하여 흑자폭이 감소
  - 서비스수지가 2분기 연속 흑자 흐름을 보이고 있으나, 수입증가에 따른 상품수지 악화의 영향으로 경상수지 흑자폭은 감소
    - 상품수지 악화는 국제유가 및 중간재 가격 폭등 및 수입증가에 기인
    - 서비스수지의 흑자전환은 여행수지 개선과 운송수지 흑자증가의 영향

〈그림 I-11〉 경상수지 항목별 증감



자료: 한국은행

〈그림 I-12〉 서비스수지 항목별 증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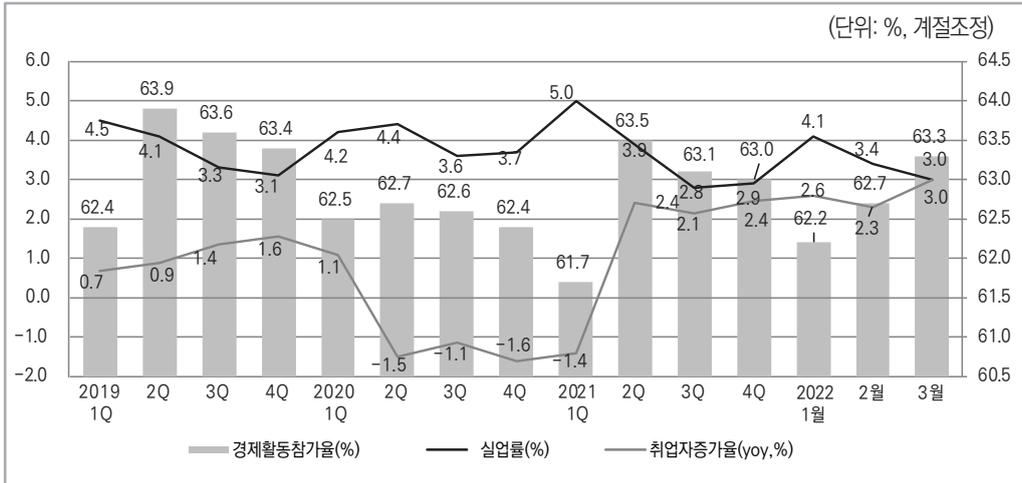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 3. 고용

□ 고용시장. 2022년 3월 기준, 취업자 2,775만 명을 기록하며 전년동월대비 83만 명 증가. 고용률 61.4%, 실업률은 3.0%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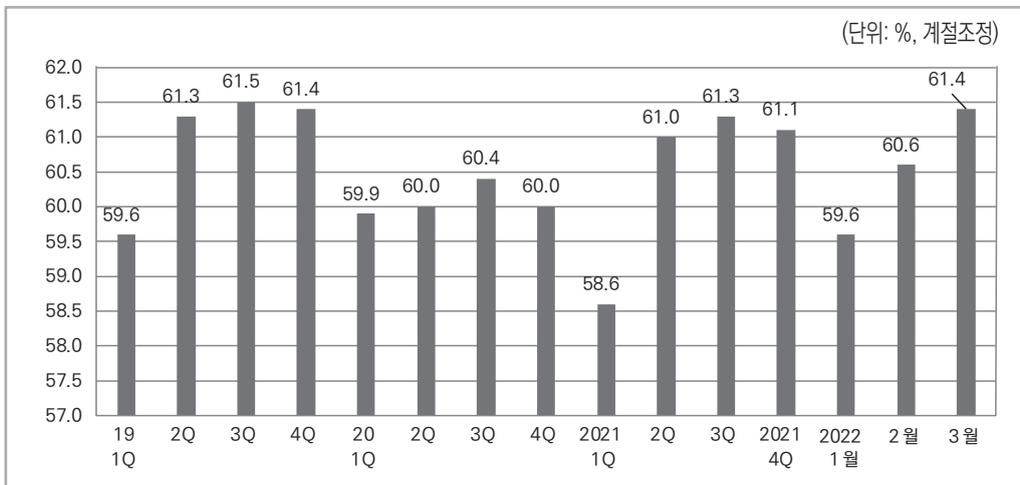
- 고용률(취업자/생산가능인구)은 61.4%로 전년동기대비 2.1%p 상승
  - 고용률(%): 57.4('21.1) → 58.6('21.2) → 59.8('21.3) → 60.4('21.4) → 61.2('21.5) → 61.3('21.6) → 61.3('21.7) → 61.2('21.8) → 61.3('21.9) → 61.4('21.10) → 61.5('21.11) → 60.4('21.12) → 59.6('22.1) → 60.6('22.2) → 61.4('22.3)
  - 청년층(15~29세) 고용률은 46.3%로 전년동기대비 3.0%p 상승
- 실업률(실업자/경제활동인구): 실업률은 2.6%로 전년동기대비 0.8%p 감소
  - 실업률(%): 5.7('21.1) → 4.9('21.2) → 4.3('21.3) → 4.0('21.4) → 4.0('21.5) → 3.8('21.6) → 3.2('21.7) → 2.6('21.8) → 2.7('21.9) → 2.8('21.10) → 2.6('21.11) → 3.5('21.12) → 4.1('22.1) → 3.4('22.2) → 3.0('22.3)
  - 청년층(15~29세) 실업률은 7.2%로 전년동기대비 2.8%p 하락
- 취업자는 전년동기대비 83만 명 증가한 2,775만 명 기록. 코로나19 확진자가 작년 12월 이후 최근까지 폭증되면서 음식·숙박업 등 대면서비스업 취업자 및 40~50대의 감소세는 지속된 반면, 제조업 취업자는 증가
  - 산업별로는 보건및 사회복지서비스업(+25.1만), 운수 및 창고(+8.1만), 교육서비스업(+8.6만) 부문에서 증가하고 감소세를 지속해 오던 제조업(+10.0만)에서도 증가한 반면, 확진세 확대에 따라 음식및숙박(-2.0만), 도소매업(-3.2만) 등은 감소세 지속
  - 연령별로는 60대 이상의 취업자가 33.1만 명 20대 17.4만 명, 30대 4.3만 명, 40대 2.1만 명, 50대 25.8만 명 등 전연령층에서 고르게 증가
  - 종사상 지위별로는 상용근로자는 81.1만 명, 임시근로자는 각각 16.6만 명 증가한 반면, 일용근로자는 17.2만 명 감소
- 비경제활동인구 중 구직단념자는 46.4만 명으로 전년동기대비 22만 명 감소

〈그림 I-13〉 경제활동참가율, 실업률, 취업자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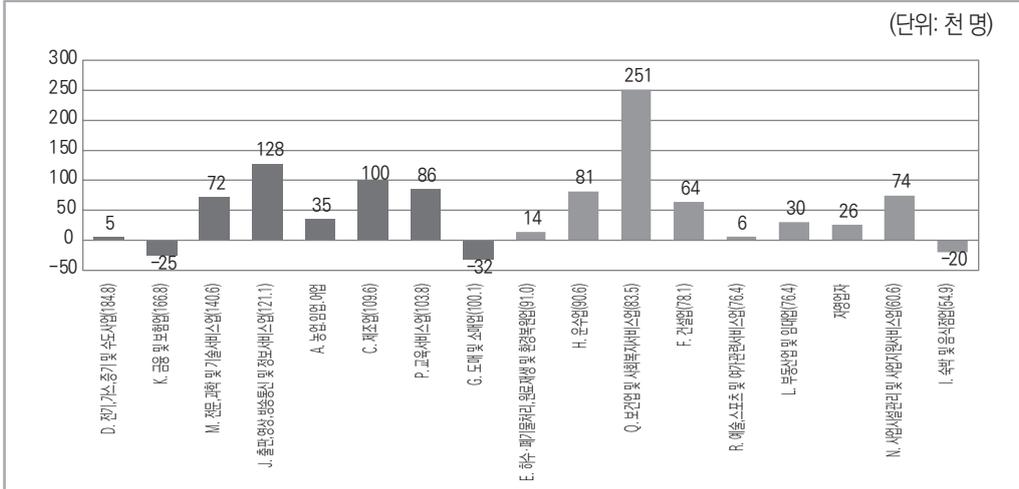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그림 I-14〉 고용률



자료: 한국은행

〈그림 1-15〉 산업별 취업자 증감(2021.3 → 2022.3)



주: ( ) 내 수치는 2021년 산업별 임금수준(전산업 평균=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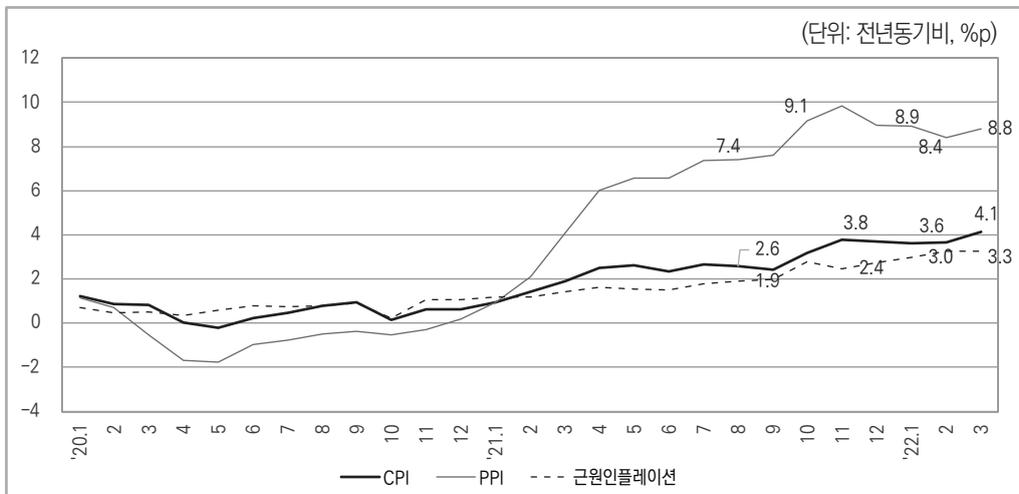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 4. 물가

- 국제유가 등 원자재가격 급등에 전년동기 저조했던 물가에 대한 기저효과까지 더해지면서 생산자물가 및 소비자물가의 상승폭이 크게 확대
- 광의통화(M2) 기준 3,662조 원에 이르는 역대 최대 규모의 통화량이 시중에 풀린 가운데, 예상치를 웃도는 재정지출이 수요압력을 높이며 물가상승에 대한 구조적 기반이 형성된 상황
- 대외요인으로는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선 국제유가 및 원자재가격 급등 및 원·달러 환율 상승이 물가에 대한 상방요인으로 작용하는 가운데, 옥수수·대두 등 수입산 곡물가격 역시 상승
- 대내요인으로는 농축수산물 가격의 증가세는 축소되었으나, 공업제품 및 서비스 가격 상승이 물가에 대한 상방압력으로 작용하면서 소비자물가는 4% 수준을 초과

- 공업제품 중에는 승용차, 가구 등 내구재 가격이, 서비스 가격 중에서는 외식물가의 오름세가 확대
  - 기대인플레이션율: 1.8%(’21.1월) → ’2.0%(’21.2월) → ’2.1%(’21.3월) → ’2.1%(’21.4월) → ’2.2%(’21.5월) → ’2.3%(’21.6월) → ’2.3%(’21.7월) → ’2.4%(’21.8월) → ’2.4%(’21.9월) → ’2.4%(’21.10월) → ’2.7%(’21.11월) → ’2.6%(’21.12) → ’2.6%(’22.1) → ’2.7%(’22.2) → ’2.9%(’22.3)
  - 생활물가지수<sup>1)</sup>(전년동월비): 0.3%(21.1월) → 1.2%(’21.2월) → 1.5%(’21.3월) → ’2.8%(’21.4월) → 3.3%(’21.5월) → 3.0%(’21.6월) → 3.4%(’21.7월) → 3.4%(’21.8월) → 3.1%(’21.9월) → 4.6%(’21.10월) → 5.2%(’21.11월) → 4.6(’21.12) → 4.1(’22.1) → 4.1(’22.2) → 5.0(’22.3)
- 근원물가지수(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 지수)는 상품 및 서비스가격 상승에 따라 전년동월대비 1.9%p 상승하며 3.3%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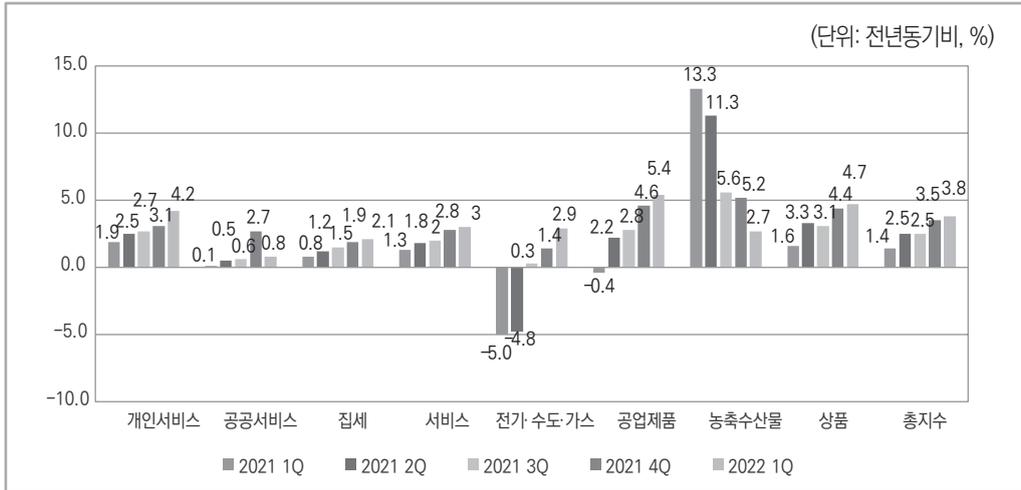
〈그림 1-16〉 주요 물가지수 증가율 추이



자료: 한국은행

1) 전체 460개 품목 중 구입빈도 및 지출비중이 높은 141개 품목으로 작성한 지수. 전월세 비포함(전월세 포함 생활물가지수는 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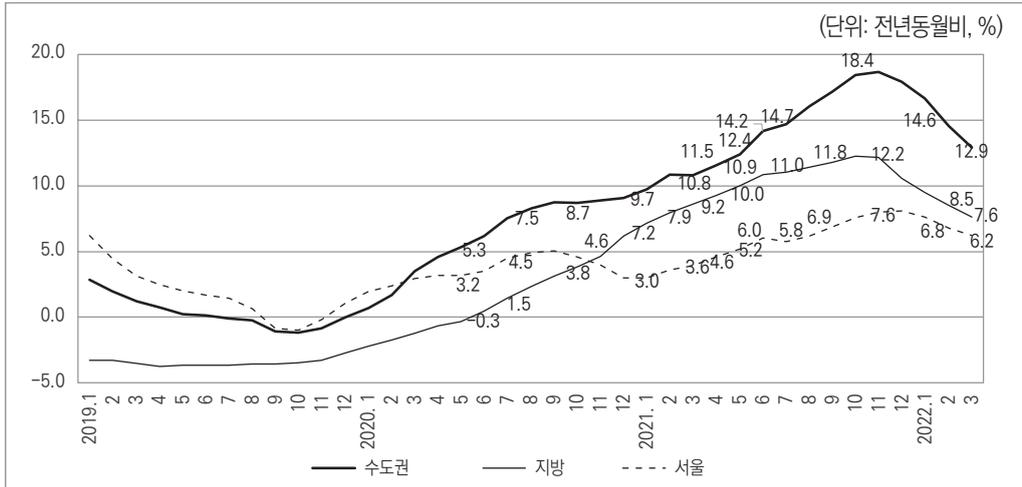
〈그림 1-17〉 품목성질별 증가율



자료: 한국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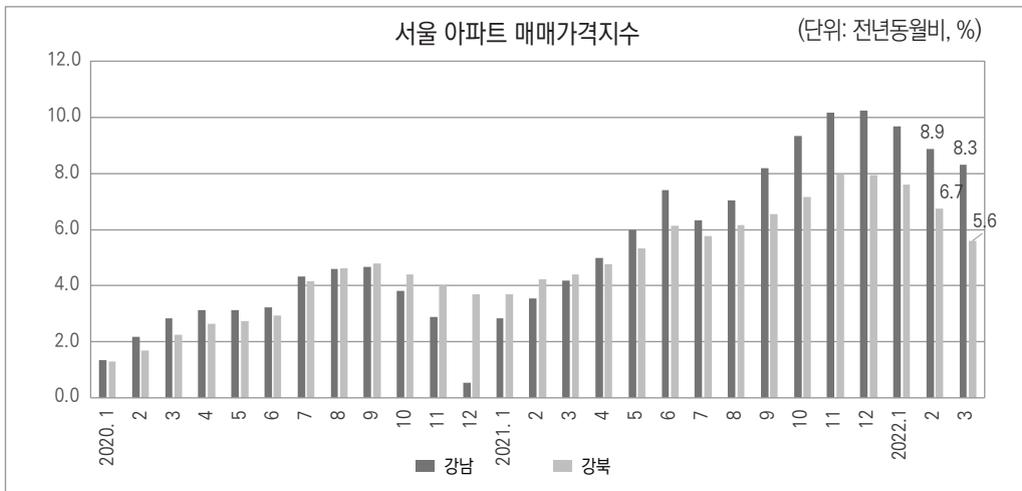
- 주택가격 및 전세가격은 주택시장 규제완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관망세 지속되며 상승폭이 축소
  - 아파트(수도권) 매매가격 증가율: 9.7%(‘21.1월) → 10.8%(‘21.2월) → 10.8%(‘21.3월) → 11.5%(‘21.4월) → 12.4%(‘21.5월) → 14.2%(‘21.6월) → 14.7%(‘21.7월) → 16.0%(‘21.8월) → 17.2%(‘21.9월) → 18.4%(‘21.10월) → 18.7%(‘21.11월) → 17.9%(‘21.12월) → 16.6%(‘22.1월) → 14.6%(‘22.2월) → 12.9%(‘22.3월)
  - 수도권의 아파트, 주택가격 상승률은 여전히 두 자릿수 증가세 지속하고 있으나 정권교체에 따른 주택시장 규제완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관망세가 지속되며 상승폭은 축소
  - 재건축, 교통망 개선 등 국지적 호재가 주택가격 상승률을 떠받치고 있는 상황
  - 거래량 감소로 일부 지역에서는 미분양 발생

〈그림 I-18〉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증가율



자료: 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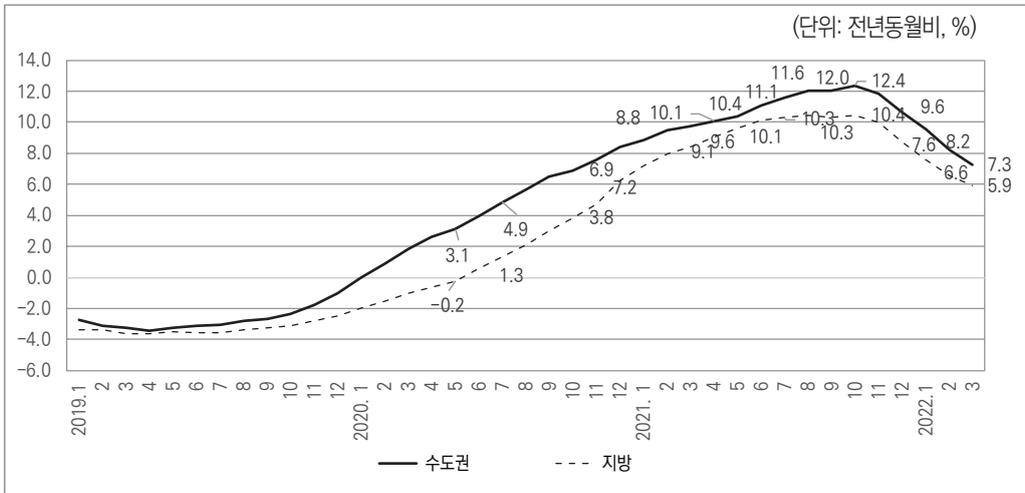
〈그림 I-19〉 서울지역 아파트매매가격지수 증가율



자료: 통계청

- 아파트(수도권) 전세가격 증가율: 8.9%(’21.1월) → 9.5%(’21.2월) → 9.9% (’21.3월) → 10.1%(’21.4월) → 10.5%(’21.5월) → 11.1%(’21.6월) → 11.6%(’21.7월) → 12.0%(’21.8월) → 12.0%(’21.9월) → 12.4%(’21.10월) → 11.8%(’21.11월) → 10.6%(’21.12월) → 9.6%(’22.1월) → 8.2%(’22.2월) → 7.3%(’22.3월)

〈그림 I-20〉 아파트 전세가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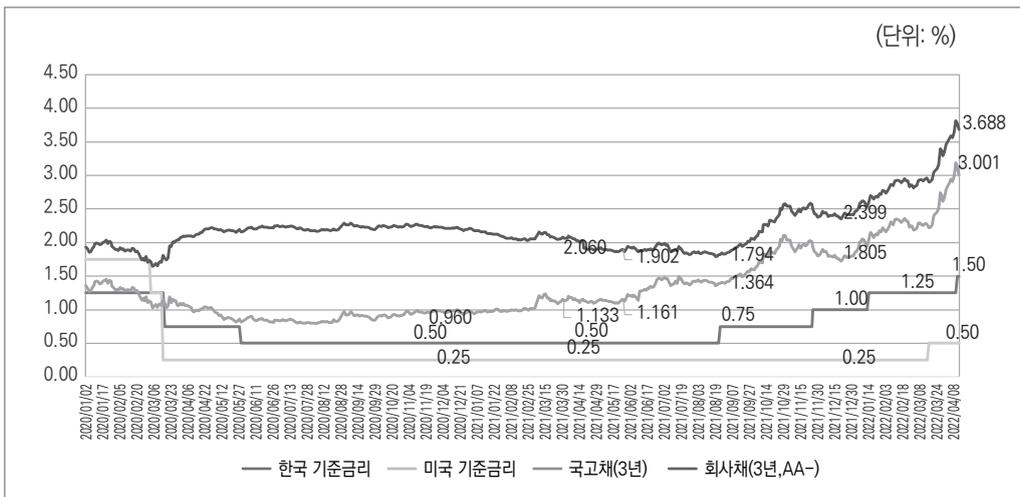
자료: 통계청

- 아파트 전세가격은 금리인상 및 새정부의 임대차3법 개편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승 폭이 축소

## 5. 금리와 환율

-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美연준의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선제대응 및 대내 인플레이션 억제조치로 지난해 11월에 이어 올 4월 기준금리를 0.25%p씩 인상하면서 한국의 기준금리는 1.50%로 인상
- 시장금리는 기준금리 상승에 따라 동반 상승
  - 회사채(3년, AA-): 2.14%(‘21.1.15) → 2.04%(‘21.2.17) → 2.12%(‘21.3.17) → 2.06%(‘21.4.9) → 1.90%(‘21.5.26) → 1.97%(‘21.6.29) → 1.83%(‘21.7.27) → 1.82%(‘21.8.26) → 2.01%(‘21.9.24) → 2.42%(‘21.10.26) → 2.58%(‘21.11.23) → 2.39%(‘21.12.10) → 2.60%(‘22.1.14) → 2.92%(‘22.2.18) → 2.95%(‘22.3.14) → 3.68%(‘22.4.13)
  - 다만, 금융시장 불확실성 증대에 따라 시장심리를 반영하는 장·단기 스프레드는 아직 줄어들지 못하는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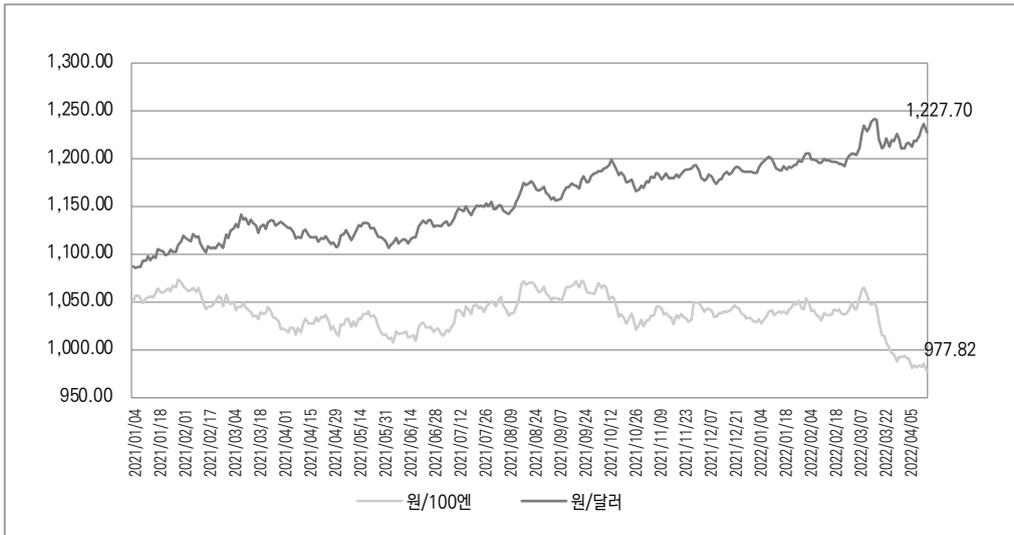
〈그림 1-21〉 한·미 기준금리와 한국의 시장금리



자료: 한국은행

- 원달러 환율. 달러화는 미국의 고(高)인플레이션 지속 및 통화정책 정상화에 대한 본격화로 강세흐름 지속. 미국의 견조한 경기회복세에 비해 상대적으로 둔화하기 시작한 한국의 경기상황 역시 원화 대비 달러화의 강세를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

〈그림 I-22〉 원/달러, 원/100엔



자료: 한국은행, 국제금융센터

## 제II장

# 국내 경제전망

1. 대외 여건
  - (1) 세계 경제성장
  - (2) 국제 유가
2. 2022년 국내 경제전망
  - (1) 경제성장
  - (2) 경상수지
  - (3) 물가
  - (4) 환율 및 금리



# 1. 대외 여건

## (1) 세계 경제성장

- 경기회복세를 지속해 오던 세계경제는 오미크론 바이러스의 확산,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공급망 차질 심화, 주요국의 통화정책 조기 정상화 등의 영향으로 회복흐름이 약화
- (미국) 높은 물가상승률에 따른 통화정책 정상화 기조로의 조기변환에도 불구하고 고용 및 소비의 증가흐름이 지속되며 성장세를 이어가는 모습
  - GDP 성장률(전기비): 1.5%(1/4분기) → 1.6%(2/4분기) → 0.5%(3/4분기) → 1.7%(4/4분기)
  - 실업률: 5.2%(8월) → 4.8%(9월) → 4.6%(10월) → 3.9%(12월)
- (중국) 미·중 무역갈등 양상의 지속 및 기업구조조정 문제가 여전히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는 가운데 부동산 경기 부진, 코로나 재확산에 따른 도시봉쇄 등 악재의 영향으로 실물지표가 감소하며 회복세 둔화
  - (GDP 성장률(동기비): 18.3%(1/4분기) → 7.9%(2/4분기) → 4.9%(3/4분기) → 4.0%(4/4분기))
- (일본) 코로나19 확진세 확대로 소비를 중심으로 경기가 위축되었으나 내각의 재정 확대에 따라 완만한 개선에 대한 기대감 확대
  - (GDP 성장률(전기비): -1.1%(1/4분기) → 0.6%(2/4분기) → -0.7%(3/4분기) → 1.3%(4/4분기))
- (유로지역) 유로지역은 우크라이나 사태 등 히스크 확대로 회복흐름이 둔화
  - (GDP 성장률(전기비): -0.3%(1/4분기) → 2.2%(2/4분기) → 2.3%(3/4분기) → 0.3%(4/4분기))
- (신흥국) 수출호조에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확산세 심화에 따른 생산차질 및 소비둔화의 영향으로 경기개선 속도가 더딘 흐름. 다만, 관광객 입국 재개로 회복속도 확대에 대한 기대감이 다소 살아나고 있는 모습

〈표 II-1〉 세계 경제 전망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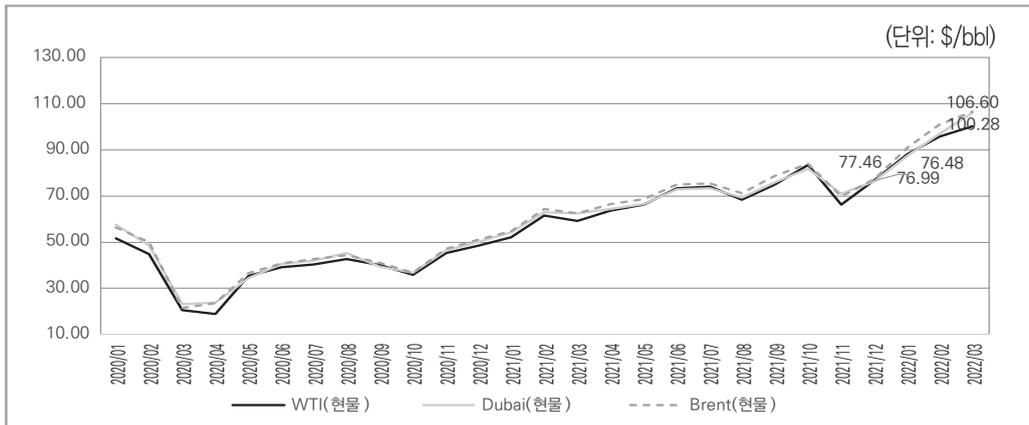
	실적치	2022 4월 현재 전망치		2022 1월 전망치와 비교(%p)	
		2021	2022	2023	2022
세계	6.1	3.6	3.6	-0.8	-0.2
선진국	5.2	3.3	2.4	-0.6	0.2
미국	5.7	3.7	2.3	-0.3	-0.3
영국	7.4	3.7	1.2	-1.0	-1.1
유로존	5.3	2.8	2.3	-1.1	-0.2
일본	1.6	2.4	2.3	-0.9	0.5
신흥개도국	6.8	3.8	4.4	-1.0	-0.3
중국	8.1	4.4	5.1	-0.4	-0.1
인도	8.9	8.2	6.9	-0.8	-0.2
브라질	4.6	0.8	1.4	0.5	-0.2

자료: IMF World Economic Outlook(Jan 2022)

## (2) 국제 유가

□ 주요국의 경기회복에 따른 수요확대 및 주요 산유국 감산기조 지속 가운데, 우크라이나 사태까지 발생하게 되면서 국제유가는 배럴당 100달러선을 돌파한 상황

〈그림 II-1〉 국제유가 추이



자료: 한국석유공사(www.petronet.co.kr)

- (전망) 세계경제의 회복에 따른 원유수요 확대가 계속되는 가운데, 우크라이나 사태가 예상을 벗어나 장기화하게 되면서 국제유가는 상당기간 현재의 상승흐름을 지속해 나갈 전망

〈표 II-2〉 세계 석유 수급 전망

(단위: 백만bbl/d)

구분	2021	2022					2023
		1/4	2/4	3/4	4/4	평균	평균
수요	92.30	94.60	96.71	99.06	100.06	97.63	101.25
공급	94.17	92.72	94.92	98.03	99.75	96.38	101.79
OPEC 공급(원유)*	30.71	30.37	30.78	32.46	33.59	31.81	34.18
비OPEC 공급	63.46	62.35	64.14	65.57	66.15	64.57	67.61
재고변동(공급-수요)	-1.88	1.87	1.80	1.03	0.31	1.25	-0.55

주: \*OPEC 12개국

자료: EIA Short Term Energy Outlook Apr 2022

〈표 II-3〉 해외 주요기관 유가(기준유가) 전망

(단위: \$/bbl)

기관 (전망시기)	유종유종	2021 평균	2022					2023
			1Q	2Q	3Q	4Q	평균	평균
EIA 2021.12	WTI	68.21	95.18	101.83	98.83	95.99	97.96	88.57
EIA 2021.12	Brent	70.89	101.17	107.65	103.98	100.66	103.37	92.57

주: EIA(美 에너지정보청)

자료: EIA

- 이상의 대외여건을 감안하여 전망의 주요 전제를 다음과 같이 설정

〈표 II-4〉 전망의 주요 전제

	2021년	2022년	2023
세계경제성장률	6.1%	3.6%	3.6%
국제유가(두바이유 기준, 배럴당)	\$69.63	\$100.71	\$90.57

## 2. 2022년 국내경제전망

### (1) 경제성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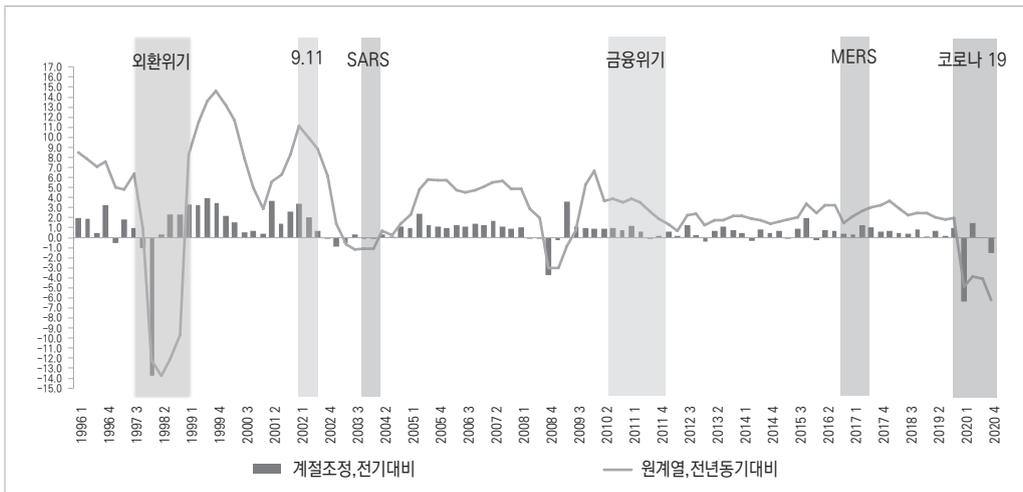
□ 민간소비: 2021년 3.6%(상반2.4, 하반4.8) → 2022년 2.8%(상반3.1 하반2.5)

- 2021년 민간소비는 상반기 중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 주식·부동산 등 자산가격 상승 등의 복합적 영향으로 회복흐름을 이어갔으나, 코로나19 4차 대유행의 장기화 및 오미크론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소비심리의 개선이 지연되면서 회복세가 약화

#### ▶ 주요 위기별 민간소비 증감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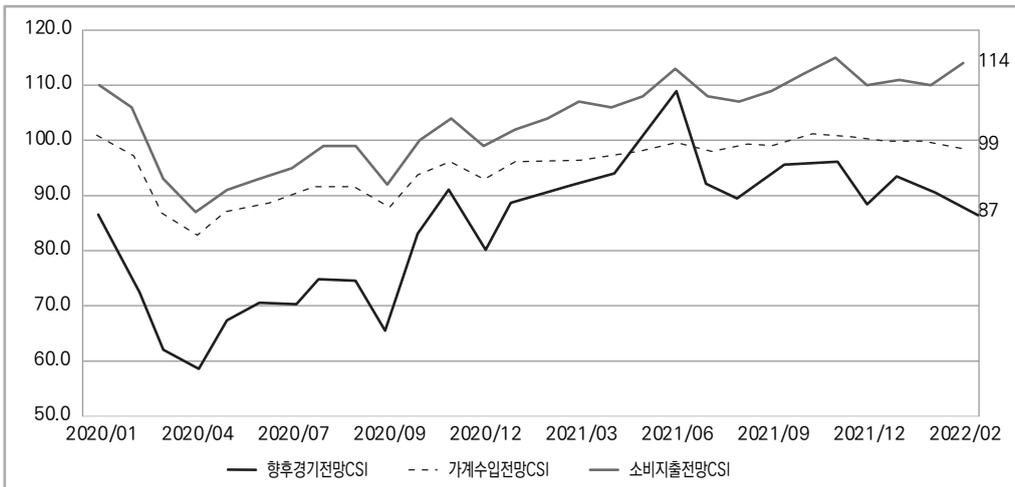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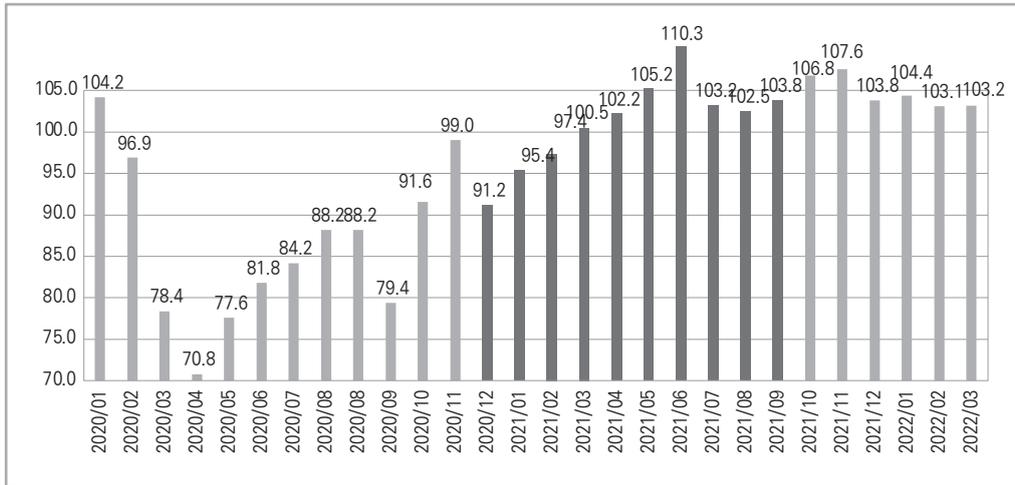
- ✓ 외환위기: -11.6%('98.1Q~'98.4Q, 평균)
- ✓ 사스: -0.7%('03.2Q)
- ✓ 금융위기: -3.0%('08.4Q~'09.1Q, 평균)
- ✓ 메르스: 1.9%('14.2Q)
- ✓ 코로나19: -5.0(2020년)

〈그림 II-2〉 역사적 민간소비 증감률(1996~2016)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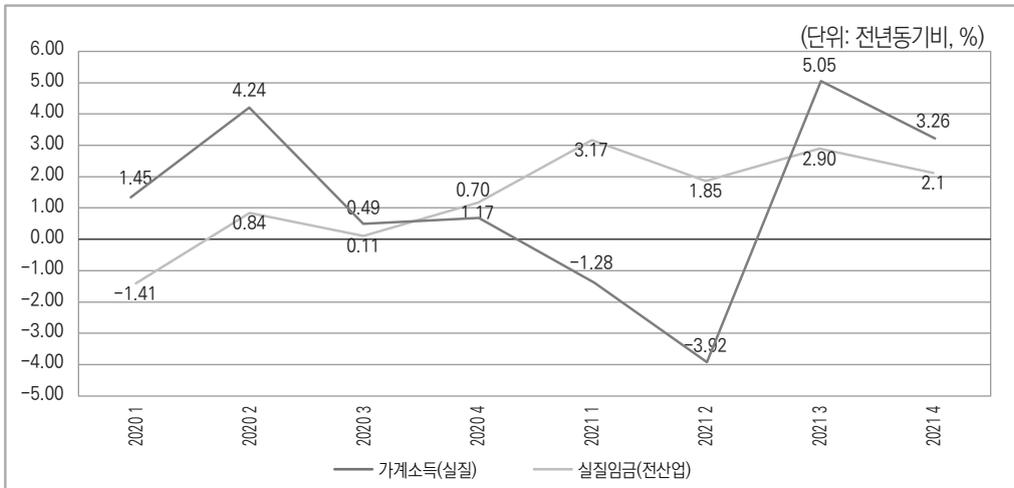
〈그림 II-3〉 소비자심리지수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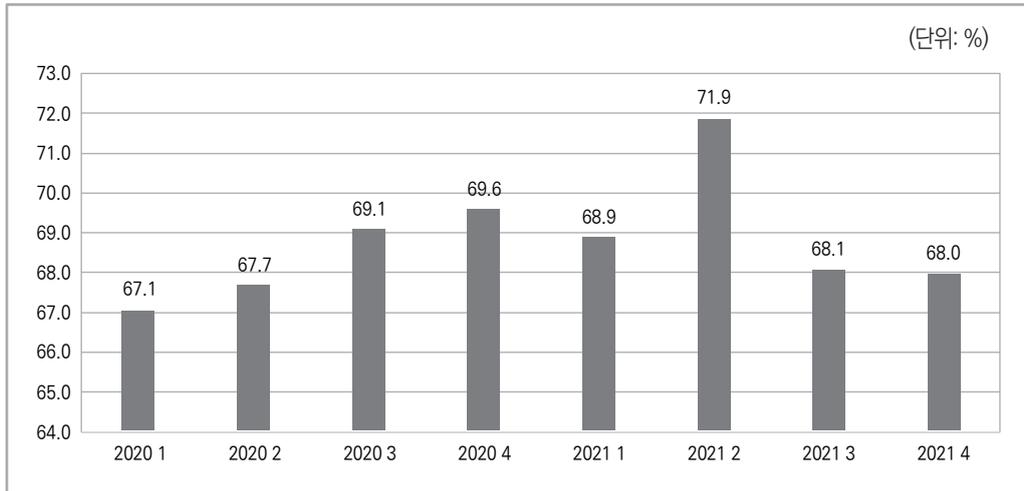
- 2022년 민간소비는 고용여건의 일부 개선에도 불구하고 자영업 부진에 따른 소득 기반 약화, 금리인상에 따른 가계신용에 대한 원리금 부담 상승 등이 소비를 제약하는 구조적 요인으로 작용하는 가운데 장기화되고 있는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경기하방 위험이 민간소비에 영향을 미치면서 회복세가 제한될 전망
  - 소득기반 약화: 임금상승률 정체, 자영업자 업황부진 지속
  - 금리인상으로 인한 원리금상환 부담 증가: 1,850조 원이 넘는 가계부채 규모에 금리인상까지 빠르게 이뤄지며 매분기 이자비용만 56조 원을 초과하며 소비여력이 감소
  - 방역조치 완화에 대한 기대감 상승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로 인한 빠른 물가상승 등이 소비심리를 위축시키며 민간소비 회복에 대한 새로운 제한요인으로 작용
  - 다만, 소상공인 손실보상 등 정부지원 정책 등은 미약하나마 민간소비 회복에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

〈그림 II-4〉 최근 가계 소득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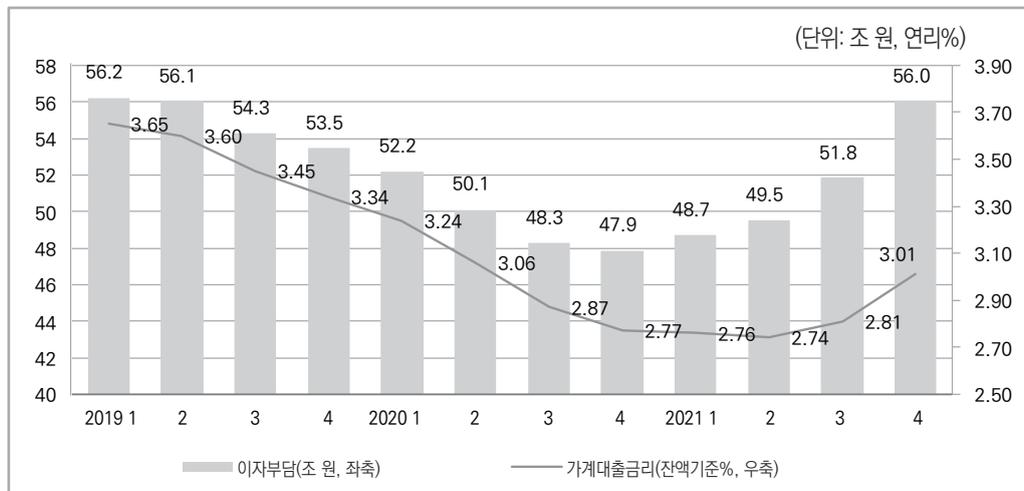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그림 II-5〉 평균소비성향



자료: 한국은행

〈그림 II-6〉 가계대출 이자부담 추이



자료: 한국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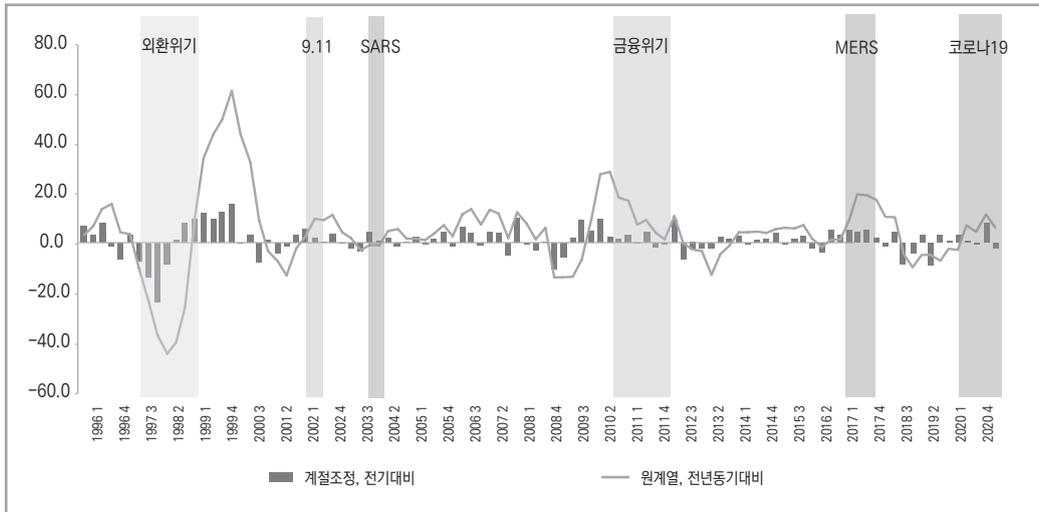
□ 설비투자: 2021년 8.3%(상반12.6, 하반4.1) → 2022년 2.1%(상반-1.5, 하반2.7)

○ 2021년 설비투자는 반도체 등 IT부문에 대한 공격적 투자와 신성장·친환경 부문 투자증가에 힘입어 양호한 성장을 기록

▶ 주요 위기별 설비투자 증감률

- ✓ 외환위기: -38.3%('98.1Q~'98.4Q, 평균)
- ✓ 사스: 1.8%('03.2Q)
- ✓ 금융위기: -14.4%('08.4Q~'09.1Q, 평균)
- ✓ 메르스: 4.5%('14.2Q)
- ✓ 코로나19: 6.8(2020년)

〈그림 II-7〉 역사적 설비투자 증감률(1996~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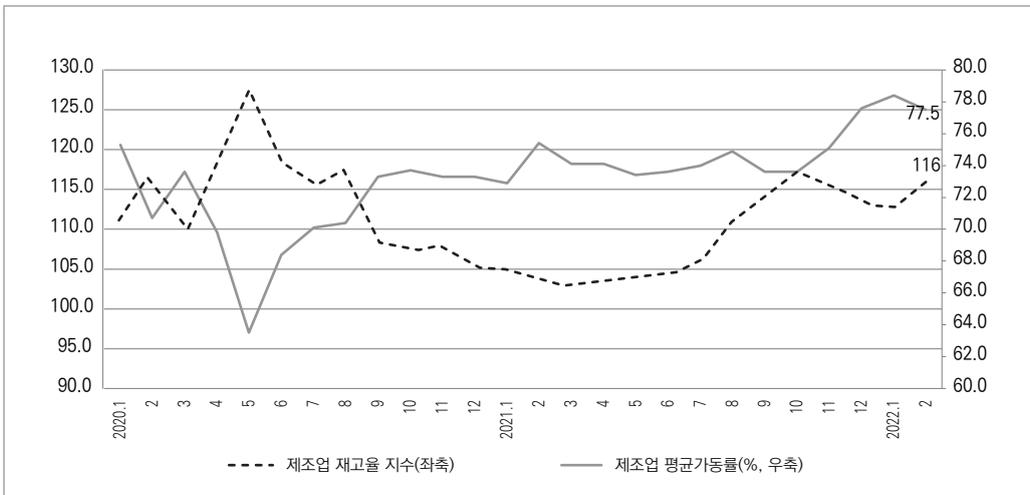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 2022년 설비투자는 주요국의 경기회복세 약화, 글로벌 공급망 차질 심화에 따라 제한적 수준에서 이루어질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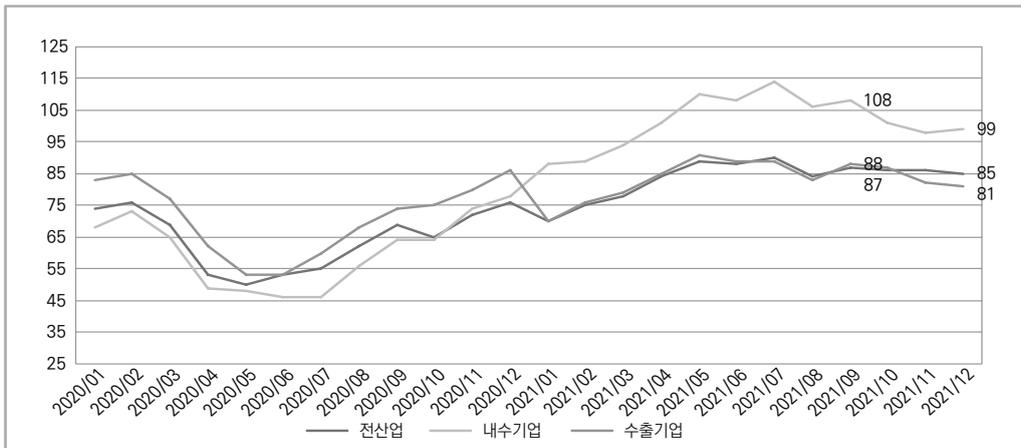
- 다만, 파운드리 분야에 대한 반도체 부분의 대규모 투자<sup>2)</sup>와 바이오헬스, 배터리 등 신성장 산업에 대한 투자확대가 지속적으로 이뤄지는 부분은 설비투자에 대한 고무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

〈그림 11-8〉 제조업 설비투자압력



자료: 통계청

〈그림 11-9〉 업황전망



자료: 통계청

2) 삼성과 SK하이닉스의 반도체 관련 시설투자는 50조 원 규모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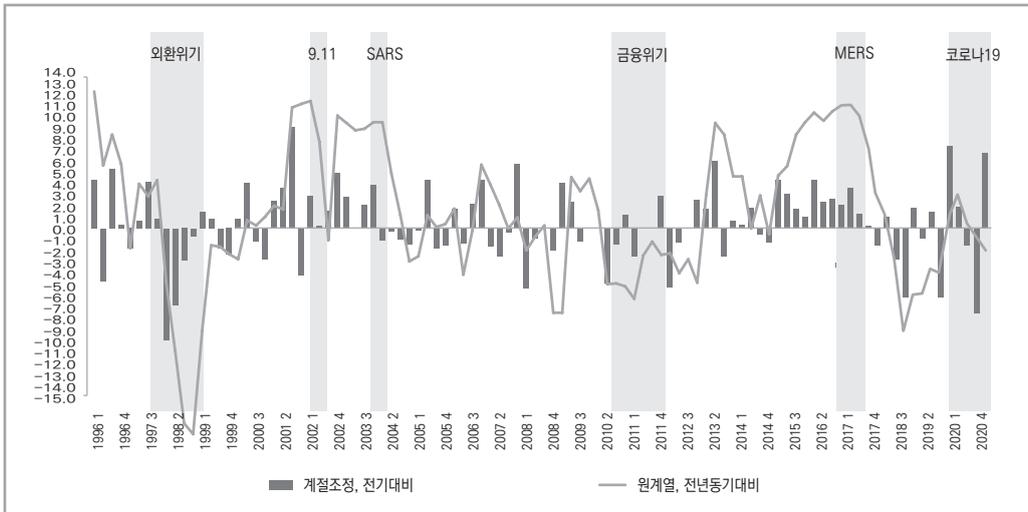
□ 건설투자: 2021년 -1.5%(상반-1.5, 하반-1.5) → 2022년 1.0%(상반0.5, 하반1.5)

○ 2021년 건설투자는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 정책의 영향 및 설비투자 증가에 따른 공업용 건물 건설 증가에 힘입어 부진이 소폭 완화

▶ 주요 위기별 건설투자 증감률

- ✓ 외환위기: -12.5%('98.1Q~'98.4Q, 평균)
- ✓ 사스: 8.4%('03.2Q)
- ✓ 금융위기: -7.3%('08.4Q~'09.1Q, 평균)
- ✓ 메르스: 0.0%('14.2Q)
- ✓ 코로나19: -0.1(2020년)

〈그림 II-10〉 역사적 건설투자 증감률(1996~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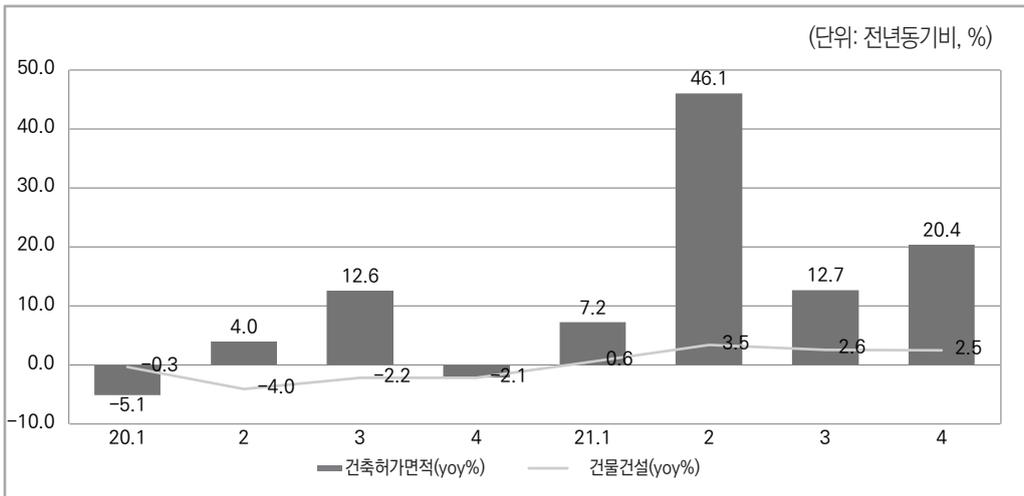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 2022년 건설투자는 공공재개발 및 3기 신도시 등 정부주도의 건물건설이 증가하고, 현재 진행중인 토목부문의 증가세에 정부의 SOC 확대 계획에 따른 철도 및 도로건설이 본격화되면서 공사물량은 늘어났으나, 원자재가격 급등의 영향으로 공사차질이 현실화되면서 건설투자 회복은 기대에 미치지 못할 전망

- 주거용 건물은 정부의 공급대책에 따른 공공재개발이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착공물량이 점진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
  - ✓ 다만, 주택거래 감소에 따라 미분양 역시 증가할 위험이 상존
- 비주거용 건물은 상업용 건물건설 증가를 중심으로 개선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기대
  - ✓ 공업용 건물 건설은 전년도에 이미 높은 수준에서 이루어져 올해는 큰 폭의 증가를 기대하기 힘든 상황
- 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른 공사현장의 차질이 이미 현실화되고 있어, 이에 대한 원활한 대처여부가 올해 건설투자의 회복흐름에 대한 가장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전망

〈그림 II-11〉 건축허가 연면적 증가율 추이



자료: 통계청, 한국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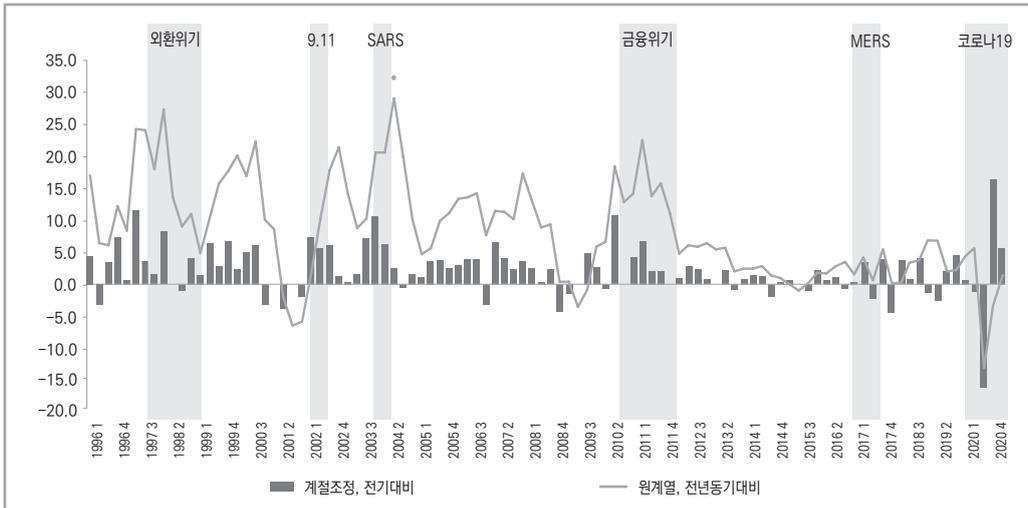
□ 실질수출: 2021년 9.9%(상반13.2, 하반6.9) → 2022년 2.4%(상반2.1, 하반2.7)

- 2021년 수출은 미·중 등 주요국의 예상을 웃도는 빠른 경기회복에 따른 수요확대로 글로벌 교역량이 뚜렷한 회복세를 보임에 따라 반도체·자동차 등 주력 제조업 제품을 중심으로 높은 증가세를 보이며 전체적인 경기회복을 견인

▶ 주요 위기별 수출 증감률

- ✓ 외환위기: 15.2%('98.1Q~'98.4Q, 평균)
- ✓ 사스: 8.8%('03.2Q)
- ✓ 금융위기: -0.9%('08.4Q~'09.3Q, 평균)
- ✓ 메르스: 2.8%('14.2Q)
- ✓ 코로나19: -2.4(202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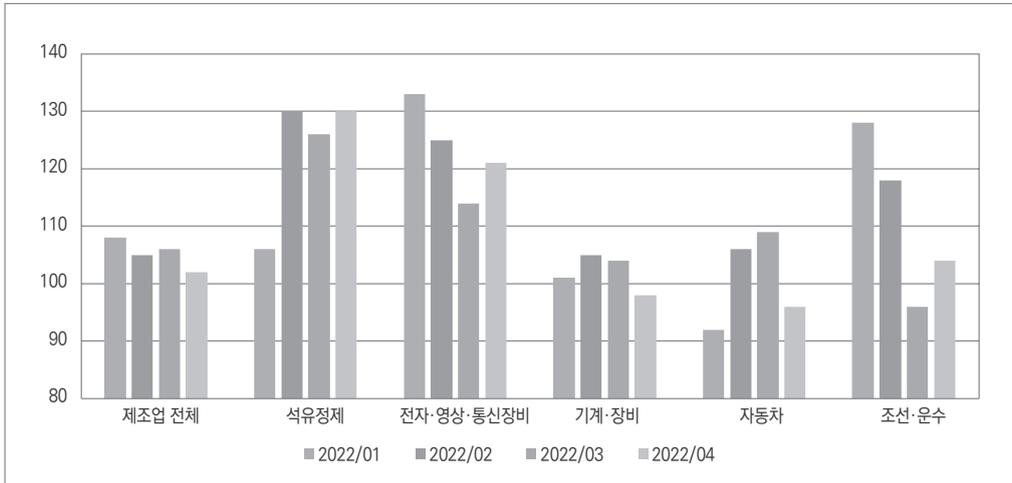
〈그림 II-12〉 역사적 수출 증감률(1996~2016)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 2022년 수출은 글로벌 경기회복세 지속에 힘입어 반도체 호황을 중심으로 성장세를 지속하게 될 것으로 보이나, 2021년 높은 실적에 대한 기저효과, 주요국 경기회복세 약화, 중국경기 둔화의 영향으로 성장폭은 둔화하게 될 전망

〈그림 II-13〉 품목별 수출경기



자료: 한국은행

- D램 가격이 소폭 하락하였으나 스마트폰용 반도체에 대한 초과수요 상황이 전개되면서 유리한 교역조건이 지속될 전망
- 반도체 뿐만 아니라 석유화학, 일반기계 부문이 국제원자재 가격 상승의 영향으로 두자릿수의 상승세를 지속중인 가운데, 신성장 품목인 바이오헬스, 전기차 등의 수출도 지속적인 성장흐름을 보이고 있는 상황
- 다만, 전년도 높았던 실적에 대한 역(逆)기저효과가 작용하는 가운데, 중국 등 주요국의 경기회복세가 약화되고 공급망 차질에 따른 글로벌 교역규모 역시 위축하게 되면서 수출 증가폭은 크게 낮아질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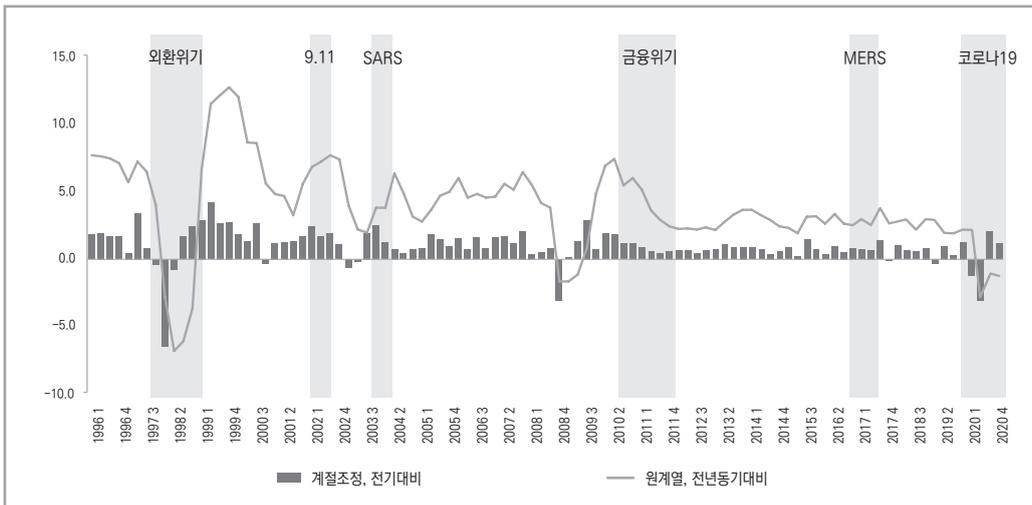
□ GDP 성장률: 2021년 4.0%(상반4.0, 하반4.0) → 2022년 2.5%(상반2.4, 하반2.6)

- 2021년 우리경제는 세계경제의 빠른 회복에 따른 수출호조가 경제부문 전반을 견인하는 가운데 2020년 역성장에 따른 기저효과가 반영되면서 4.0%의 성장률을 기록

▶ 주요 위기별 GDP 증감률

- ✓ 외환위기: -5.1%('98.1Q~'98.4Q, 평균)
- ✓ 사스: 2.3%('03.2Q)
- ✓ 금융위기: -1.5%('08.4Q~'09.2Q, 평균)
- ✓ 메르스: 3.4%('14.2Q)
- ✓ 코로나19: -1.0(2020년)

〈그림 II-14〉 역사적 GDP 증감률(1996~2016)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 2022년, 방역조치 완화로 인한 민간경제 활력 재고 여부, 글로벌 공급망 교란 상황 심화에 대한 대처여부가 경기흐름의 방향을 결정짓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는 가운데, 기저효과의 소멸, 정책지원 여력 감소, 수출성장세 약화 등 성장의 하방요인이 강하게 작용하면서 성장률은 기대에 미치지 못할 전망

★ 통화정책

- 지난 8월과 11월에 이어 금년 4월까지 금리인상이 선제적으로 이루어진 상황
- 높은 물가상승세와 美기준금리 인상 여부에 따라 2022년중 추가적인 금리인상이 불가피할 전망
- 급격히 늘어난 가계부채, 기업부채가 금리인상 현실화로 인해 금융시장 내에 신용경색 및 신용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관리하고, 급격한 금리인상이 경기회복의 제약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정상화 속도에 신중을 기할 필요

★ 재정정책

- 2022년도 예산은 2021년도에 비해 48.6조 원 증액된 604.4조 원으로 편성된 가운데 총수입은 548.8조 원에 불과해 이미 1,000조 원을 돌파한 국가채무가 더욱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화
- 경기부양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상황임은 자명하지만 무분별한 이인지출 남발보다는 기업 및 가계에 실효성 있는 지원정책을 펼쳐 나가는 한편, 재정지출 효율화를 면밀히 진행하여 재정건전성 확보에 대한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 나갈 필요

○ 다음과 같은 불안요인들의 향후 성장률 전망에 하방리스크로 작용할 가능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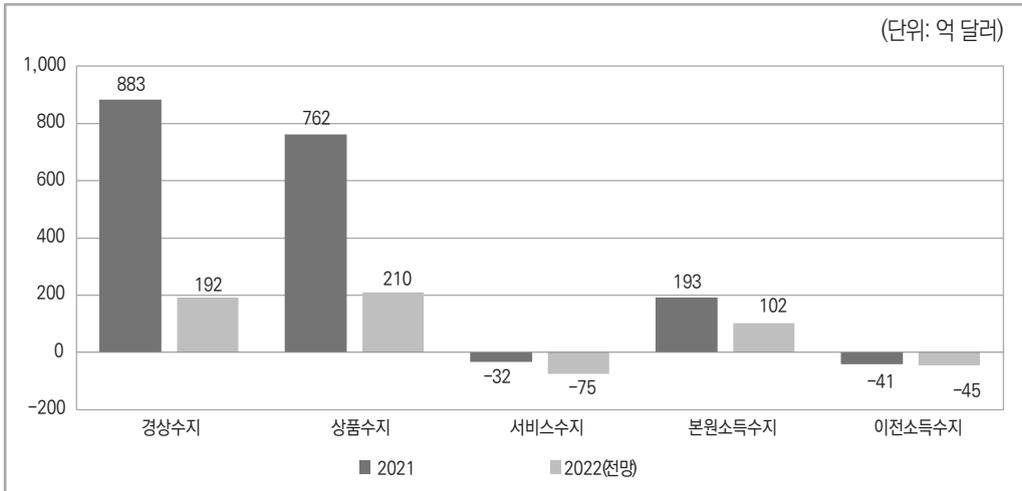
- 방역조치 완화가 민간경제의 활력 재고로 이어지지 못할 가능성
- 공급망 차질에 기인한 물가의 급등에 따른 경기급랭 가능성
- 국제 원자재가격 상승 및 글로벌 공급차질 심화 및 장기화에 따른 불확실성 증대가 주가 및 자산가격 변동폭을 확대시킬 가능성
- 중국경제의 경기회복세 둔화에 따른 세계 교역량 위축 가능성

## (2) 경상수지

□ 경상수지: 2021년 883억 달러 흑자(상반418, 하반465) → 2022년 192억 달러 흑자(상반77, 하반192)

- 2021년 경상수지는 글로벌 경기회복에 따른 수출호조 및 서비스수지 개선에 힘입어 양호한 실적을 기록하였으나, 2022년에는 수출증가세가 점차 약화되고 수입 수요 및 수입단가가 크게 늘게 되면서 경상수지 흑자규모가 급감하게 될 전망
- 특히, 내국인의 해외여행이 점진적으로 재개될 경우, 서비스수지는 2021년에 비해 2022년 적자폭이 커질 것으로 전망

〈그림 II-15〉 경상수지 항목별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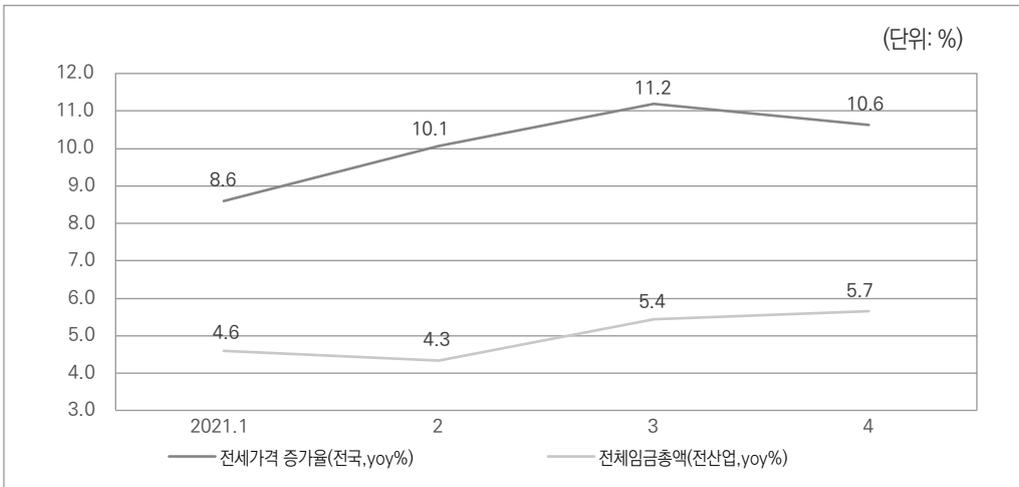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 (3) 물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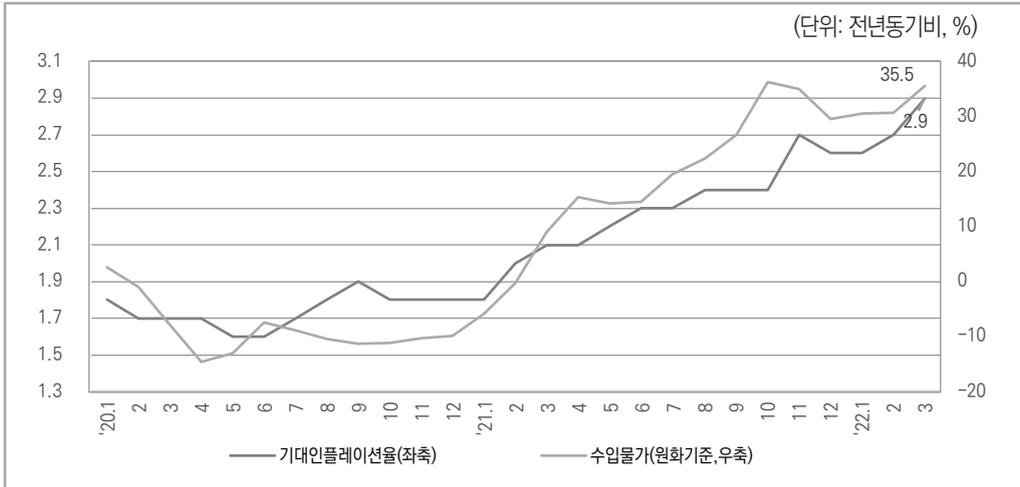
□ 소비자물가: 2021년 2.5%(상반2.0, 하반3.0) → 2022년 3.8%(상반3.9, 하반3.7)

- 2021년 물가는 국내경기의 회복세에 따른 수요확대가 물가상승세를 지지하는 가운데 국제원자재 가격 상승 등 공급 측 요인이 물가상승을 견인하며 2% 중반 수준을 기록
- 2022년 물가는 우크라이나 사태 등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라 국제원자재 가격 급등 및 수급불균형 현상이 광범위하게 물가상승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3% 후반 수준에 이르게 될 전망
  -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방역조치 완화 역시 서비스 가격에 대한 상방요인으로 작용
  - 코로나19로 인해 지연되어 오던 공공요금 인상이 금년 중 순차적으로 이루어질 전망

〈그림 II-16〉 전세가격, 임금총액



〈그림 II-17〉 수입물가, 기대인플레이션율



자료: 한국은행, 통계청

#### (4) 환율 및 금리

□ 원/달러 환율: 2021년 1,145원/달러 → 2022년 1,255원/달러

- 2022년 원달러 환율은 美연준의 통화정책 정상화가 본격화되고 미국의 경기회복세가 지속되는 반면, 한국의 성장속도는 상대적으로 둔화하게 됨에 따라 2021년 대비 상승하게 될 전망
- 특히, 파월의장의 5월 50bp 금리인상 가능성 시사 등 미국의 통화긴축 및 고인플레이션, 지정학적 갈등 등에 따른 글로벌 경기둔화 위험을 반영하여 달러화에 대한 수요증대는 지속하게 됨에 따라 달러화는 강세기조를 이어질 전망
- 다만, 현재까지 양호한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는 한국의 대외건전성 및 외환보유고, 美 재정적자의 과다한 누적에 대한 우려는 원화 대비 달러화 강세를 제한하는 요인으로 동시에 작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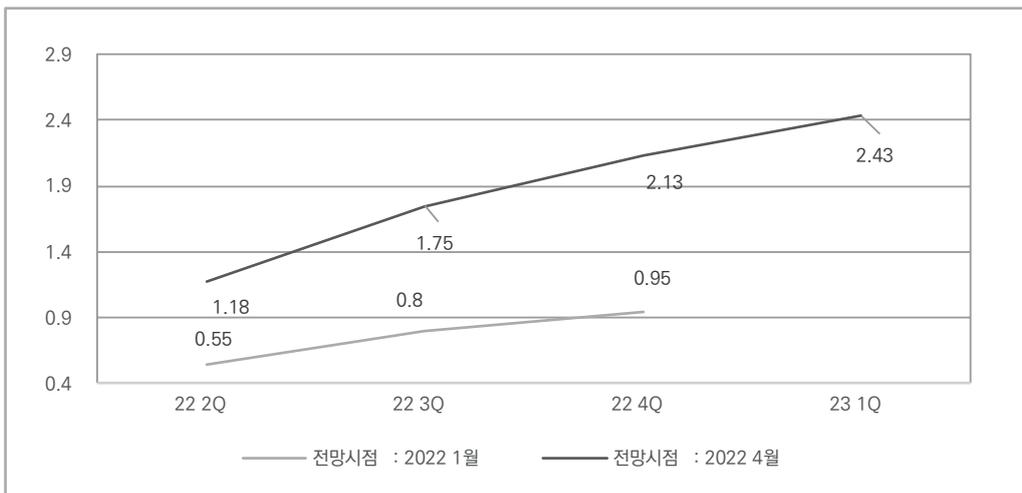
〈그림 II-18〉 원/달러, 달러 인덱스



자료: 한국은행, 국제금융센터

- 정책금리. 미국의 기준금리가 5월중 두차례 인상을 거쳐 올연말 2.00% 수준에 이르게 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한국의 기준금리 역시 현재 0.50%에서 상승하여 2.50~3.00% 수준에 이르게 될 전망

〈그림 II-19〉 미국 기준금리 전망



자료: 국제금융센터, 주요 10대 IB 전망 평균치

**[이슈 1: 주택공급 계획 난무 속에 건설투자 부진 이유]**

- 문재인 정부는 2018년 12월 3기 과천,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 계양 등 지역을 3기 신도시로 지정하여 12만 가구를 공급할 계획을 수립
- 2019년 5월에 고양 창릉, 부천 대장 등을 3기 신도시에 편입시켜 5만 8000여 가구에 대한 추가적 주택공급을 계획
- 2021년 2.4 공급대책을 새롭게 발표하여 서울지역에 신규 32만호를 포함하여 전국에 주택 83만호 신규공급을 약속
- 신도시 개발은 통상 다음과 같은 순서에 따라 진행



- 현재 착공이 시작된 지역은 사실상 단 한 곳도 없는 상황이며, 신도시개발의 가장 기본적인 단계인 해당 지구에 대한 토지보상조차 완료되지 못한 상황

	면적	주택공급 규모	보상협의 진행률
인천 계양	333m <sup>2</sup>	17,000가구	61.7%
하남 교산	631m <sup>2</sup>	34,000가구	82.8%
고양 창릉	813m <sup>2</sup>	38,000가구	0%
남양주 왕숙	1,105m <sup>2</sup>	69,000가구	0%
부천 대장	343m <sup>2</sup>	20,000가구	0%
광명 시흥	1,271m <sup>2</sup>	70,000가구	0%

- 지지부진한 진행 현황으로 인해 2025년까지 입주예정이었던 당초의 계획이 차질없이 진행될지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며, 글로벌 공급망 차질로 인한 건설부자재 가격 급등 역시 개발사업에 대한 불확실성을 가중시키는 요인
- 이와 같이 공급대책이 신속하게 진행되지 않는 것이 건축허가면적은 늘고 있으나 건설투자는 부진을 면치 못하는 이유로 작용

**[이슈 2: 국제유가 상승의 거시적 영향]**

- 우크라이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국제 원자재가격 상승현상이 심화되어 국제유가는 배럴당 100\$ 선을 돌파한 상황이며, 이와 같은 추세는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
- 원유의존도<sup>3)</sup>가 높은 우리경제의 경우, 국제유가의 고공행진으로 인해 거시경제 전반에 걸쳐 산업활력은 낮아지고 인플레이션 압력은 높아지는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점증하고 있는 상황
- 이에, GDP, 물가, 국제유가 등의 변수로 구성된 5변수 VAR 모형을 구축하여 분석한 결과, 국제유가 1% 상승시
  - GDP 0.0033%p 하락
  - 소비자물가 0.023%p 상승
  - 수출 0.03%p 하락, 수입 0.145%p 상승
- 이는 국제유가가 배럴당 60달러에서 100\$로 상승할 경우,
  - GDP 0.35%p 하락
  - 소비자물가 1.5%p 상승
  - 수출 2.0%p 하락, 수입 9.6%p 상승
- 국제유가 상승이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한 만큼, 내수부문의 에너지 소비에 대한 효율성을 높이는 가운데, 장기적으로는 원유에 치중한 에너지 정책을 다변화시키려는 노력이 필요

---

3) 원유의존도 =  $\frac{\text{연간원유소비량}}{\text{국내총생산}}$

〈표 II-5〉 2022 국내경제전망

(단위: 전년동기대비(%), 억 달러(국제수지부문))

	2020년	2021년			2022년		
	연간	상반	하반	연간	상반	하반	연간
GDP	-0.9	4.0	4.0	4.0	2.4	2.6	2.5
민간소비	-5.0	2.4	4.8	3.6	3.1	2.5	2.8
건설투자	-0.4	-1.5	-1.5	-1.5	0.5	1.5	1.0
설비투자	7.1	12.6	4.1	8.3	-1.5	2.7	2.1
지식생산물투자	4.0	4.0	3.7	3.9	3.9	3.5	3.7
수 출	-5.5	13.2	6.9	9.9	2.1	2.7	2.4
수 입	-7.1	8.6	8.5	28.8	9.8	5.1	7.5
소비자물가	0.5	2.0	3.0	2.5	3.9	3.7	3.8
경상수지(억 달러)	753	418	465	883	77	115	192
상품수지(억 달러)	819	384	378	762	86	124	210
서비스수지(억 달러)	-161	-38	6	-32	-29	-46	-75
실업률(%)	4.0	4.5	2.9	3.7	3.9	3.5	3.7

# keri 경제동향과 전망

1판 1쇄 인쇄 / 2022년 5월 27일

1판 1쇄 발행 / 2022년 5월 31일

발행처 / 한국경제연구원

발행인 / 권태신

편집인 / 권태신

등록번호/제1982-000003호

(07320)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24 FKI TOWER 46층

전화(대표) 3771-0001

<http://www.keri.org/>

© 한국경제연구원, 2022